



中 화웨이 폰서  
SK하이닉스 칩 발견  
美, 추가 규제 우려  
04



Economy

|                                  |                                      |
|----------------------------------|--------------------------------------|
| 코스피<br>2547.68<br>(-0.58)        | 코스닥<br>914.18<br>(+7.82)             |
| 금리 (국고채 3년)<br>3.795<br>(-0.052) | 환율 (원·달러)<br>1333.40<br>(-2.00) (8일) |

# 허술한 감사 체계... 작년 1000억, 올해만 592억 횡령

##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마비된 내부통제 시스템

### 〈上〉업권 불문 사고 줄줄이

은행 뿐 아니라 카드·신탁 등 모든 금융업권 횡령사고 증가 회사 내부통제 제 기능 못해 인력부족에도 지원은 소극적

금융권이 횡령과 자금 유용 등 사고로 얼룩지고 있다.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제2금융과 카드사, 신탁사까지 업권을 불문하고 사고가 터지는 실정이다. 문제는 회사 내부통제와 감사 시스템은 물론 외부감사에 감독당국의 종합감사까지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고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3면〉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양정숙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규모만 벌써 592억 73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8년부터 누적된 사고금액은 2000억원이 넘었다.

작년 한 해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데 어 최근에는 경남은행에서 단 한 명의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 이낸싱(PF) 자금 1300억원을 횡령했다.

국민은행은 직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마케팅 직원들이 협력업체와 공모해 105억원을 빼돌렸다. 지난주에는 무궁화 신탁에서 한 직원이 9억원을 횡령해 지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들 사고 모두 내부감사나 통제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마비되면서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직원이 수년째 같은 일을 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직원에 대해 예고 없이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해당 직원 업무를 감사하는 명령휴가제도 유명무실했다. 일부 준법감시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스스로를 점검하거나 여수신 업무도 같이 했다.

내부 상임감사가 있더라도 경영진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작년 한 해만 100건이 넘는 횡령



리창 中 총리와 환담하는 윤 대통령

주요20개국(G20) 뉴델리 정상회의의 마지막 날인 1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李强) 중국 총리를 다시 한번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현화 행사 전 라운지에서 리 총리와 만나 환담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연내에 리 총리를 다시 볼 수 있길 바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하자 리 총리는 “대통령의 말을 시 주석에 잘 전하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회담은 총 51분간 이어졌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사고가 있었던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상임감사가 없는 곳도 많았다. 경영진과 이사회는 내부통제를 비용만 유발하는 규제로 인식해 인력이나 지원조직 확충에는 소극적이었다.

당국이 지난해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으로 지적됐다.

김범진 카톨릭대 교수는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최고경영자는 세세한 실무가 아니라 제대로 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KB금융지주 차기회장 후보에 양종희 내정

# 비은행·글로벌 부문 등 수익구조 다변화 과제

은행 비중 줄이고 비은행 확대 해외 IB 등 사업 다각화 예고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로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이 내정됐다. 내부 출신이면서 국민은행장을 역임하지 않은 첫 회장 후보다. 은행 이익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금융지주의 수익구조가 다변화하고 있는만큼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수익구조의 판도를 넓히는 것이 과제로 지목된다.

김경호 회추위원장은 지난 8일 양 부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한 이후 “지주·은행·계열사의 주요 경영진으로 재직하면서 쌓은 은행과 비은행 전반에



양종희 KB금융 차기회장 최종후보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겸비한 후보”라며 “KB손해보험 사장 및 KB금융지주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략 및 재무통’으로 꼽히는 양 부회장은 은행부터 보험에 이르기까지 KB금융그룹의 핵심 사업에 두루 능통한 전문 금융인

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양 후보자는 2016년부터 KB손해보험 대표이사로 5년간 지내며 KB손해보험을 핵심 계열사 반열에 올렸다.

KB손해보험은 2018년 업황불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당기 순이익은 2018년 2624억원, 2019년 2347억원 등으로 줄었다. 다만, 신계약가치가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미래를 대비한 매출전략을 추진하면서 내재가치(EV)를 큰 폭으로 성장시켰다. 지난해 말 KB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은 5577억원이다. KB금융 인사는 처음으로 KB손해보험 대표이사를 맡으며 기반을 착실히 다졌기 때문이란 평가다.

◆ 인수합병(M&A) 통한 비은

### 행 강화

이에 따라 양 후보자의 첫번째 과제는 KB금융의 비은행 부문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금리인상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압박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익확대를 위해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KB금융은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순이익 목표비중은 60%대 40%다. 전체 순이익 중 은행의 비중을 줄이고, 비은행 부문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K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2조 9967억원으로 비은행 기여도는 38%(1조 1382억원)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메트로경제 ‘2023 물류&모빌리티포럼’

##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초국경 물류위한 현재와 미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도래하면서 글로벌 물류도 대변혁이 시작됐다. 코로나19 기간 폭발했던 국내 물동량은 잠시 소강 상태다. 반면 글로벌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시장의 지속 성장속에 첨단 기술의 물류 분야 접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이동로봇, 드론, 전기차 등 모빌리티까지 기술 융합에 적극 가세하면서다. 이에 따라 퍼스트마일, 미들마일, 라스트마일의 이동은 더욱 빨라지고 또 효율화되고 있다. 기업들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기업간, 얼라이언스(동맹)간 이합집산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초국경 물류를 잡기 위한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에서 조명해본다.

- 주 제 :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 일 시 : 2023년 9월19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등 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 의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기조강연 : 인천대 송상화 동북아물류대학원장
- 강 연 : 이워박스 박철수 대표, 하이리움산업 김서영 대표, 로지올(생각대로) 최규범 부사장
- 후 원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통합물류협회

metro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 녹색기후 자금 3억달러 공여  
▲위상 높아진 김정은 딸 주애... 주석단 특별석서 2인자 형세 /사진 뉴시스

▲정부, 잼버리 수습 비용, 행안·여가·교육부가 보전... 추석 전까지 정산  
▲인천 행정구역 30년만 개편... 인천 제물포·영종·검단구 설치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5000만원 소송 /사진 뉴시스  
▲전남 장흥 금산리 일대 국립호국원 부지 최종 선정



# “기후변화 대응 3억달러 지원… ‘녹색 사다리’ 역할 할 것”

**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해 국제해운 탈탄소 노력 매우 중요 녹색 해운항로 인프라 구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인도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위해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관련 분야 기술 협력에 3억달러의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G20 회의 첫 시간에 나온 것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에너지원인 원자력과 수소 산업에서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도국과 협력·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해운의 탈탄소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바다 위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델리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인 라즈가트를 방문해 G20 정상들과 함께 헌화하고 있다. /뉴시스

탄소중립, 즉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로 가는 열쇠는 녹색 해운 항로의 구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3억달러는 녹색기후기금(GCF)에 쓰인다. 녹색기후자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UN) 산하의 국제기구로, 한국은 지난 2013

년에 1억달러, 2020~2023년에 2억달러를 공여한 바 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이 밝힌) 기후변화 리더십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분명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탄소·무탄소 선박 개발과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등의

‘녹색 해운 항로’ 구축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탄소·무탄소 선박 개발과 항만 인프라 구축 등의 ‘녹색 해운 항로’ 비전도 제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우리 조선 산업이 탄소 중립 시대의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도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날 저녁에 열린 G20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 참여해 각국 정상과 교류했다. 윤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핵심 파트너국 정상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 지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주제로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 공고화가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3국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을 이끌어낸 주역”이라면서 “우리의 협력으로 3국 국민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홍보수석은 전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3분기 중 후쿠시마산 수산물가공품 지속적 ‘수입허용’

**해수부, 모두 오염수 방류 이전 생산**  
**日 8개 현 수산물물은 ‘수입금지 유지’**

**‘가공품’ 수입기준 명확히 공개 안돼**  
**방류 이후 생산품 수입 정책 미공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올해 3분기 중 지속적으로 허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입업자 등은 후쿠시마산 수산물가공품을 올해 7월 하순과 8월 상순, 8월 하순, 9월 상순에 국내로 들여왔다. 8월 하순에는 후쿠시마와 인접한 도치기현에서 제조된 가공품도 수입했다.

특히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달 24일에도 총 1.2톤(t)가

량의 후쿠시마산 수산물가공품이 국내 방사능 검사를 통과했다.

다만 이들 제품은 모두 방류 개시 이전에 생산·제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해수부·식약처 홈페이지 내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에 고시됐다. 수산(물)가공품에는 통조림과 건어물, 젓갈류 등이 있다.

지난 7월27일자 고시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6월15일 제조된 후쿠시마산 기타수산물가공품(2.4t)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쓰여 있고, 이후 국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은 내년 12월14일이다.

8월7일자에는 후쿠시마현에서 각각 7월10월(240kg), 7월14일(2.04t) 생산된 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실

시됐다.

8월24일치에 따르면 올해 1월10일 생산됐다는 수산물가공품(300kg)도 들여왔다. 소비기한은 2026년 1월25일까지라고 적혀 있다. 같은 날 360kg(7월31일 생산), 576kg(7월12일) 상당의 제품도 방사능 검사를 거쳤다. 이날은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개시한 날이다.

이달 들어 고시된 9월6일자에도 후쿠시마산(240kg)이 일본 각 지역산 수입품 목록에 포함돼 있다.

또 후쿠시마현 바로 밑에 위치한 도치기현(8월25일자)에서도 수산물가공품 51kg이 수입됐다. 생산일자는 2022년 9월28일이고 유통기한은 2025년 9월27일이다.

식약처 등은 이들 수입품에서 방사성 핵종인 세슘·요오드가 검출되지 않

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치는 세슘134와 137, 요오드129 모두 kg당 100 베크렐(Bq) 이하다.

정부는 10년 전 후쿠시마 등 8개 인접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수급조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산물을 가공해 만든 제품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오염수 방류 이후 생산된 가공품도 수입·통관을 허용할 건지에 대한 정책적 답변이 아직 안 나왔다.

후쿠시마와 인접한 현 7곳은 지바와 이바라키, 군마, 도치기,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현이다. 방사능 검사현황에 따르면 미야기현에서 만든 어묵(1.2t)이 지난 8월24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산업부 ‘中 전제’ IPEF 5차 공식협상 참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무역·청정경제 등 연내 타결 추진  
美·日·호주·뉴질랜드 등 14국 참석

미국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5차 공식협상이 진행된다.

지난 5월 공급망(필라2) 협상 타결에 이어 나머지 무역·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별 쟁점을 집중 협의해 연내 타결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16일까지 7일간 태국 방콕에서 IPEF 제5차 공식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

해 미국이 동맹국가 등을 규합해 추진하는 다자 경제협의체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첫 제안해 7개월 후인 작년 5월 공식 출범했다.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세계의 40%를 차지한다.

이번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피지 14개 참여국이 참석하며,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한 분야별 협상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 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왼쪽 일곱번째)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월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참여국들은 지난 7월 부산에서 개최된 4차 공식 협상 이후 화상을 통한 회기간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두 달 만에 개최되는 이번 공식 협상에서는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쟁점을 축소하고 핵심 쟁

점에 대한 참여국 간 이견을 좁혀나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IPEF의 공급망 분야(필라2) 협정은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타결돼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에 나선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1면 ‘KB금융지주 차기회장’서 계속

**2030년 글로벌 수익 30%**  
**2040년 40%로 확대 목표**

업계 안팎에선 양 후보자가 인수합병(M&A)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글로벌 건축기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위험 등으로 다수의 증권 및 보험사 인수합병 매물이 등장할 수 있어서다.

현재 리딩금융을 앞다투는 신한금융의 비은행 비중은 약 40% 수준이다. 앞으로는 비은행 비중에 따라 리딩금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과거 LIG손해보험 인수를 주도한 경험을 살려 비은행 인수합병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진출 확대

아울러 글로벌 진출 확대는 또 다른 과제다. 국내에서 추가 수익을 내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장을 넓혀 수익규모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KB금융은 2030년까지 글로벌 수익비율을 30%, 2040년까지 40%로 높일겠다는 목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해외 영업점(지점·사무소·현지법인)은 지난 3월 기준 총 106개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의 영업점은 15개로 4개은행 중 가장 적다.

양 후보자는 은행부문에 치중돼 있던 글로벌 사업을 IB, 리테일, PB 등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글로벌 은행과 경쟁하기에는 은행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양 후보자에게 전문화된 비은행 부문(캐피탈, 보험, 카드사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신흥아시아 뿐만 아니라 서구권의 선진시장까지 진출하는 투트랙 전략도 예상된다.

양 후보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이사회에 회장후보자로 추천되며 11월 20일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인맥·성과 앞에 원칙 뒷전... 실효성 있는 ‘감사시스템’ 절실

온정주의, 업무편의주의 만연  
금융당국·은행 감사 유명무실  
현장 중심 사고예방 대책 필요

#. 검찰이 한 오피스텔을 뒤지자 돈다발이 든 검은 가방이 나왔다. 다른 오피스텔에서는 냉장고 속의 김치통에 비닐로 쌓아놓은 현금과 수표가 있었다. 골드바 100여개에 상품권 4100만원, 미화 5만달러까지 검찰이 은신처에서 발견한 도주자금만 147억원에 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로부터 압수한 금품. /서울중앙지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1300억원 규모의 경남은행 횡령 사고를 조사하면서다.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는 일 잘하기로 소문났던 직원이었다. 성과가 좋다보니 같은 부서에서 15년이나 있었다. 순환인사 같은 규정과 원칙은 무시됐다. 이부장이 근무했던 당시 감독당국이 프로젝트와 이낸싱(PF) 부문도 들여다봤지만 횡령을 잡아내지 못했다. 작년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 이후 전 은행에 자금관리체계 등 자체점검 명령과 개선방안이 줄줄이 나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검찰은 지난8일 부동산 PF 대출금 13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당 인물을 구속기소했다.

## ◆‘적당히 뭉개자’... 상호견제 미미

경남은행의 사례만 봐도 개인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와는 차원이 다르다. 은행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에서 수년간 반복

적으로 일어난 불법행위인데다가 감시시스템도 3중, 4중으로 갖춰져 있었다. 현업의 리스크관리, 준법감시에 함께 독립적으로 검증할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당국 검사까지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현업에서는 특정 직원이 장기간 동일 업무를 해왔고 명령휴가제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의 기본인 상호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여전히 수기로 문서대장을 작성하는가 하면 온정주의나 업무편의주의로 규정 준수 뒷전으로 밀렸다. 준법감시부서는 인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운영해와 실질적인 통제효과가 없었다. 내부 감사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활동으로 경영진을 견제하겠다는 인식이 미흡했고, 상임감사가 없거나 지원조직이 부족한 경우도 태반이었다. 경영진과 이사회는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남은행 횡령의 경우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금융권 횡령사고 피해규모〉

| 연도          | 횡령규모       |
|-------------|------------|
| 2018년       | 112억8400만  |
| 2019년       | 131억6300만  |
| 2020년       | 177억3800만  |
| 2021년       | 34억800만    |
| 2022년       | 1010억7200만 |
| 2023년(7월 말) | 592억7300만원 |

단위: 원

/금융감독원, 양정숙 의원실

## ◆최고경영자에 모든 책임

잇따른 금융사고에 일단 최고경영자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점검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금감원 이준수 부원장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하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일선 영업현장 구

석구석에서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실패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도 급증한 횡령사고로 국내 시중은행장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불려나가 사과하는 촌극이 연출됐었다.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부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을 취합한 뒤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채택할 계획이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거론 중이다. 여야는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은 다음달 10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가 12일, 금감원이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매출 500대 기업 절반 “하반기 신규채용 미정”

전경련 대내외 불확실성에 기업 위축  
“올해 취업 경쟁, 작년보다 치열할 것”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로 기업심리가 위축되면서 올해 하반기 청년 취업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0개사 중 6개사(64.6%)는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중 채용계획 미수립 기업은 48.0%, 채용이 없는 기업은 16.6%였다.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이 미정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44.6%)보다 3.4%포인트(p) 증가했으며 채용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같은 기간 대비(17.4%) 0.8%p 감소해 큰 차이는 없었다.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 비중은 35.4%로, 이 중 전년 대비 채용 규모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57.8%, 줄이겠다는 기업은 24.4%, 늘리겠다는 기업은 17.8%로 나타났다.

2022년 하반기 조사와 비교하면, 채

용을 줄이겠다는 기업 비중은 지난해(13.0%) 대비 11.4%p 늘었고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 비중은 지난해(37.0%)보다 19.2%p 줄었다.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 ▲수익성 악·경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긴축경영 돌입(2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 악화(19.0%)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등에 대비한 비용 절감(15.2%) 등을 주요 이유로 지목했다.

반면, 신규채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미래인재 확보 차원(33.4%)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신산업 또는 새로운 직군에 대한 인력 수요 증가(22.2%) ▲회사가 속한 업종의 경기상황이 좋거나 좋아질 전망(22.2%) 등을 꼽았다.

특히 기업들은 올해 대졸 취업 경쟁이 작년보다 치열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대졸 신규채용 예상 경쟁률은 평균 81대 1로 조사됐다. 응답 비중별로는 30~60대 1(29.7%), 1~30대 1(21.5%), 60~90대 1(14.9%) 순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제33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2023.9.22.(금) - 9.24.(일) 3일간

울진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개회식 2023.9.22.(금) 17시 / 울진종합운동장 축하공연 [식전] 김용임 / [식후] 박지현 | 양지은

※ 개회식 참가자 전원 선물증정 및 사은품 천만원 상당 추첨

[주최] 경상북도·경상북도체육회 [주관] 울진군·울진군체육회 [후원] 대한체육회



# 美-中 갈등에 K-반도체 ‘새우등’?… SK 中공장 규제 우려

## 中 화웨이 폰서 SK하이닉스 칩 발견

한국 반도체 산업이 뒤통수를 맞았다. 중국이 만든 스마트폰에 SK하이닉스 메모리가 탑재됐다.

10일 테크인사이츠와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화웨이가 만든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에 SK하이닉스에서 만든 LPDDR5D램과 낸드플래시가 확인됐다.

화웨이는 2019년 5월부터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다. 미국 기술이 쓰인 첨단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를 살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5G 통신이 가능한 최신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게 됐고, 결국 아니 등 자회사들 매각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었다.

SK하이닉스가 LPDDR5D램을 양산한 것은 2019년 하반기부터다. 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받는 중에 SK하이닉스 LP



(위) SK하이닉스의 18Gb LPDDR5 D램. 화웨이가 발표한 메이트 60 프로. /각사

DDR5D램을 공급받은 셈이 된다.

앞서 미국 테크인사이츠는 화웨이 메이트60 프로에 중국 SMIC가 만든 7나노 공정 통합칩(SoC)이 탑재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SMIC 역시 2020년 말에



SK하이닉스 우시펑

/SK하이닉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으로, 10나노 이하 반도체를 만들 수 없도록 소프트웨어와 EUV 등 장비 수입 규제를 받아 왔다.

미국 무역 규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무역 규제가 예상대로 반도체 경제를 악화시키면서 중국 반도체 자생력만 높게 됐다고 비판하는 분위기, 반면 미국 정부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 SK하이닉스 “절대 아니다”

SK하이닉스는 화웨이와 거래하지 않았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화웨이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후 미국 수출규제를 철저히 준수 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에도 이런 사안을 보고했다.

美 제재 화웨이, SK 칩 공급받은 셈 비공식적 경로 칩 반입 가능성에 관련업계, 미국 규제 비판 분위기

미국 정부 “규제 더 강화” 목소리  
中, 공무원 아이폰 사용금지 ‘반격’

업계나 전문가들도 SK하이닉스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직접 공급하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 규제를 받고 있는 화웨이와 거래를 하기도 힘들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극히 적은 반면, 추후 발각되기도 쉬운데다가 감당할 피해도 너무 크다는 것. 중국 현지 공장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서 유출 가능성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화웨이가 비공식적인 경로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반입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SoC나 통신칩 등 특수 반도체는 제품에 탑재하기 위해 개별 작업이 필요하지만, 메모리는 범용 제품이라 같은 규격이라면 어떤 제품든 쓸 수 있어서 가능하다.

테크인사이츠도 메이트60프로 대부분에서 중국산 메모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이트60프로를 전수조사하면 SK하이닉스가 아닌 다른 브랜드 메모리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일단 업계에서 의심되는 유입 경로는 중개상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범용이라는 특성상 대부분 중개상을 거쳐 판매된다. 중개상 역시 무역 규제를 무시하고 화웨이에 판매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몰래 화웨이에 팔아버리면 확인할 도리가 없다.

중국이 미국 규제 이후 비상식적인 유통 경로도 활용 중이다. 홍콩과 마카오 등을 거치는 방법, 심지어는 국경 지

역에서 ‘보따리상’으로도 반도체를 다 치는 데로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절묘한 의혹에 음모론까지

문제는 다음달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으면서,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규제를 유예해 주기로 한 바 있다. 1년이 지나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하지만, 무산된다면 국내 기업은 중국 반도체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워진다.

분위기는 좋지 않다. 미국 상무부 지나 러몬드 장관은 최근 중국을 다녀온 이후 ‘다양한 채찍’을 언급하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미국 정부가 추가 규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반도체 산업협회(SIA)가 성명을 내고 현지 업체들이 워싱턴D.C에 모이기도 했지만, 현지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이같은 미국 정부를 오히려 자극하는 모습이다. 화웨이가 메이트60 프로 출시 일정을 일부러 앞당기면서 미국 러몬드 장관 방중 일정에 맞췄다는 추측도 나온다.

반격도 시작했다. 중앙 정부 기관 공무원에 아이폰 사용을 금지시켰다. 중국에 핵심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매출 중 20% 가량을 거두는 미국 애플에는 치명적이다.

화웨이가 쓴 메모리가 최신 제품인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화웨이 제품에 탑재된 제품이 올 초에 양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중국 공장장에서 유출됐다면 미국이 장비 반입 규제를 강화해야 할 근거가 된다.

SK하이닉스 메모리가 이런 정치 상황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일단 화웨이가 만든 메이트60프로가 물량이 극히 적고,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 메모리가 나온 제품은 일부에 불과해서 의미가 없다는 이유다. 반대로 정황상 SK하이닉스 뿐 아니라 타사 메모리가 병용 사용됐을 가능성도 높아서 SK하이닉스만 표적이 됐는지도 의문점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자칫 격랑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조사를 끝내기까지는 적지 않을 시간이 걸릴 전망, 그동안 화웨이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씻어내기 어려워서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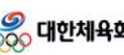
##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 2023.10.13.~10.19.

##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2023.11.03.~11.08.



주최  대한체육회

주관  전라남도

후원  전라남도교육청

후원  전라남도체육회

후원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KSPO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희망부자들이 세상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부자이겠지만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들 역시  
희망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꿈벌을 지키면서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  
책을 통해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

이런 희망들이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희망부자들을 응원합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희망부자**  
그 첫번째 이야기 ☺

**K-Bee 프로젝트**

KB금융그룹은 밀원숲 조성 및 도시 양봉을 통해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K-Be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 작은도서관**

KB금융그룹은 모든 아이들이 독서와 함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08곳의 지역에 KB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2023년까지 전국 8곳에 새로운 도서관을 조성해갑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b KB 금융그룹**



국정감사,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 열려

##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위해 ‘재정준칙 도입’ 등 논의 필요”

##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분석

與 “GDP比 국가채무 비율 50% 넘어  
무분별한 재정 지출 막을 필요 있어”

野 “감당 가능 수준… 법인세 인하해  
세수 결손 가중한 尹정부 책임 커”

국회가 내달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의 현안 및 쟁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국정감사를 연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특히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열띤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상임위 별 중점 현안을 분석했다.

경제 분야에서 눈여겨 볼 만한 현안은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논의할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정부여당은 전 정부에서 국내총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국가의 경제 기초 체력이 약해졌으며 재정준칙을 도입해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한국의 상황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국가채무이며, 법인세를 인하여 세수 결손을 가중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 경제를 악화시켰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를 중점 주제로 꼽으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로 향후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가채무 상황은 세계 주요국에 대비해 양호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2022년 기준 국가채무 금액이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 도입, 지출 구조조

정 등의 예산제도 활용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 도입 논의 이외에도 경제침체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국회가 들여다볼 사안은 산적해 있다.

국회 정부위원회는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재발방지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강화 ▲K-바이오산업 엑시트시장 다양화 지원 ▲한전 적자 해소와 전력시장 안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생성형 인공지능 육성·규제 및 윤리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다룬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기를 맞아 의원과 보좌진이 합심해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엔 총선과 겹쳐서 지역구도 관리하고 국정감사도 준비해야 해 더 바쁜 것 같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檢, 이재명 재소환에 “재판 지연 전략” vs “정지사냥”

(與)

(野)

검찰, 12일 조사 재출석 통보

與, 건강상 이유로 조사 일찍 끝내  
野, 증거 없이 망신주기에 열 올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째 단식을 이어간 가운데, 검찰이 오는 12일에도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해,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에 재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지사냥’이라는 입장이다.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정치검찰 앞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면서 “그럼에도 정치검찰의 추가한 언론플레이 술책은 조사 직후에도 멈추지 않고, 이 대표 흡집 내기를 넘어 망신주기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이라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묘사해 언론에 배포했다”면서 “정치검찰에 묻겠다.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전언이나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정황, 아무 관계없는 도정에 관한 이야기들로 조사의 긴 시간을 보내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 극에 달했다며 쏘아붙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소환조사 역시 앞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조

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는 그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에 바빴다”면서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켜봐야 하는지 답할 따름”이라고 혹평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난데없이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을 시작한 이재명 대표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다음에 또 출석할 테니 이번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고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이 시작되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더니,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퇴장해 버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퇴근 단식도 ‘내 맘대로’ 하더니, 검찰청에 온 피의자가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하는 것도 참으로 ‘내 맘대로’ 식”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도가 댔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비롯, 복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의 대납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박태홍 기자

## 민주당 “정기국회서 교권보호 입법처리에 앞장설 것”

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

“여야 간 몇가지 논쟁에 지연  
신속한 입법 가능하도록 노력”

최근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소위 말하는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치

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렇수록 제도적인 정비 필요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과도한 규제라든지 간섭들을 조금 완화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지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야 간에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이 여러 부분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중에 교육문제도 또 하나의 축일텐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현장에서 애

쓰시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금까지도 많이 애써주셨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에 제대로 된 적법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최근에 대전에서 돌아가신 초등학교 선생님은 대전교사노동조합원이자 초등 교사노동조합 조합원이었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배경은 우리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발생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

해서, 무려 4년에 걸쳐서 괴롭힘을 당해 결국은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며 “당 대표께서 초·중·고 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가급적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교권회복이라는 국민의 목소리와 선생님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8월부터 여야는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세 차례 열어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선생님들이 요청한 법안을 차곡차곡 합의 처리하고 있다. 몇 가지는 합의를 못 하고 있는데,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법안만큼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 내자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단식 투쟁 11일차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 여행할 때도 하나뿐인 내편

해외 수수료는 걱정 없는 편

환율 걱정 없이 환전하는 편

낮선 화폐도 두렵지 않은 편

그래서 이번 여행도 더 신나는 편

지금 떠나봐, **트래블로그로**  
하나뿐인 여행으로!



18개국통화 환전  
수수료 무료 (~12/31)



해외 ATM 수수료  
부담 제로



해외 가맹점  
수수료 면제



목표환율에 맞춰  
자동 환전 가능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상품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카드 준법심의 A-23-1127 (2023.06.22~2024.05.31)



# 저축은행 예금금리 연 4.5% ‘마지노선’ 돌파

시중은행 예금금리 인상에 맞불  
전국 79곳 정기예금 평균 4.16%  
DH저축銀, 6개월 단기 4.6% 책정  
지방·중소형은행 5%대 기대감도



시중은행이 4%대 정기예금을 출시하자 저축은행권이 고집하던 금리 상단인 연 4.5%가 깨졌다. /뉴시스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높이자 저축은행도 맞불을 놓고 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한 것. 하반기 유지하던 예금 금리 상단이 깨지면서 고금리 정기예금 릴레이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1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정기예금(1년물) 평균 금리는 연 4.16%다. 지난 7월초(3.97%)와 비교하면 0.19%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6개월짜리 단기예금의 금리는 0.46%p 올랐다.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권과 고금리 경쟁을 펼치는 모양새다.

이달 은행권이 연 4%대 정기예금을 잇따라 출시했다. 현재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프예금’은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4.1%의 이자를 제공한다. 이어 DGB대구는행의 ‘DGB함께예금(연

4.05%)’, Sh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4.02)’ 등이 뒤를 잇는다.

은행권이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한 배경에는 미(美)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자리잡고 있다. 미 연준의 ‘매파(통화긴축 선호)’ 기조에 국내 채권 시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다. 지난 7월 은행채(AAA, 3년물) 금리는 연 4.31%다. 지난 7월(연 4.33%)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도 시중은행에 맞서 고금리 예금을 출시했다. 그간 ‘금리다이어트’를 위해 업계가 유지하던 금리 상단인 연 4.5%를 돌파했다. 이달 DH저축은

행은 정기예금에 금리 연 4.55%를 적용했다. 6개월짜리 단기예금에는 연 4.6%를 책정했다. 이어 스마트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연 4.51%다. 안전한 투자처를 원하는 은퇴자 및 ‘금리 노마드족’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를 켜 셈이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이 3분기 내 고금리 예금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연 6%대 정기예금의 만기 도래 때문이다. 특히 가입자 10만명 미만의 중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과 대형저축은행과의 조달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현재 연 4.5%의 예금금리 상단을 돌파한 저축은행은 가입자 10만명 미만의 중소형저축은행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방·중소형 저축은행은 디지털전환, 마케팅강화 등을 진행할 여력이 대형사 대비 떨어지는 만큼 금리 인상을 통한 자금 조달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연 4.6%대 정기예금을 발견하면 곧바로 가입할 것을 권장했다.

올해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대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 4.5%를 초과하는 정기예금은 2~3영업일 이내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만큼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중소형저축은행이 연 5%대 정기예금이라는 ‘초강수(超強手)’를 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금금리 1%p 이내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에 은행권과 저축은행의 금리 상단을 적용하면 1년 뒤 지급받는 이자 금액의 차이는 21만원에 그친다. 한 달에 1만 7000원 수준이다. 투자성향이 보수적인 금리 노마드족을 잡기에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한 달 이자 차이가 2만원 수준이라면 중소형저축은행보다는 은행권 예금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김소영 부위원장, 홍콩서 ‘K투자’ 세일즈

정부·유관기관 합동 투자설명회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사진)이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정부·유관기관 합동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ID 폐지 등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배당절차 개선방안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등 일반주주 보호 정책 ▲외국인의 국채 투자 비과세 ▲국제예탁결제기구와의 국제통합계좌 개통 준비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주요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이후 김 부위원장은 홍콩 금융관리국 아서위엔(Arthur Yuen) 부청장을 만나 양국이 금융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상당수 홍콩에 진출해 있지만, 여전히 홍콩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며 “한국의 유능한 금융인력들도 홍콩 금융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길 희망하고 있는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현재 국내 금융사들 가운데서는 은행 11곳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15곳이 홍콩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서위엔 부청장은 “최근 홍콩은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금융관련 솔루션 제공 기업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IT 기술이 발달한 한국의 핀테크 관련 기업과 인재들이 홍콩에 진출한다면 양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우리금융, 2만명 초청 사회공헌 콘서트

16~17일 ‘우리 모모콘’ 개최  
이석훈·다비치·폴킴 등 출연

우리금융그룹이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2만명을 초청해서 을 난지한강공원 젊음의광장에서 ‘모이면 모일수록 선한 힘이 커지는 콘서트(우리 모모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 모모콘’은 참가자가 콘서트 관람과 함께 우리동네 선한가게, 생명의 숲, 비인기종목스포츠 후원, 우리니어로 등 우리금융이 마련한 다채로운 사회공헌 홍보와 체험 이벤트에도 참여하고, 참여가 기부로 이어지는 사회공

헌 축제 한마당이다.

이번 콘서트는 우리금융 고객뿐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금 수혜자(어린이·청소년·대학생), 우리니어로(소방관·경찰관·군인) 등 그룹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수혜자들과 사회복지사 등 NGO단체 임직원 약 8000명을 특별 초청한다.

출연 아티스트 라인업은 16일에 이석훈, 다비치, 국카스텐, 스테이씨, 비 등이 출연하고, 17일에는 이무진, 폴킴, 우즈(WOODZ), 에일리, 자이언티의 출연에 이어 우리금융그룹 브랜드 앰버서더로 아이유도 참석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금감원, 다크웹 보안위협 대응 머리 맞댄다

21일 ‘테크 파인더 쇼케이스’ 행사  
우수 기술 핀테크사, 금융권 소개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을 금융권에 소개하는 ‘테크파인더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다크웹발 보안위협이 현실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대응 필요성이 늘었다”며 “금융사에게 다크웹 위협 대응을 위한 신기술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에게는 금융권과의 협업 기회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쇼케이스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의 홍보보스를 제작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다크웹 위협 대응 체계 구축’을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한다.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다크웹 위협대응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를 활용한 다크웹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쇼케이스는 다크웹 모니터링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내 핀테크 기업에 한해 참가 신청서를 받고, 5개사 내외로 참석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금융, 해외 현지직원 대상 기업문화 워크숍에서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하나금융

## 하나금융, 해외 직원들에 원팀 DNA 전파

하반기 글로벌 기업문화 워크숍

하나금융그룹이 지난주 인천 청라에 위치한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글로벌 원팀(One Team) DNA 전파를 위한 ‘2023 하반기 하나 글로벌 기업문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현지직원을 대상으로 그룹의 미래 방향성과 지속가능한 ESG 경영활동 등을 함께 공유하

고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하나금융은 행사에 참석한 20개국 30명의 해외 현지직원을 대상으로 그룹의 글로벌 현황 및 전략, 기업문화, ESG 경영활동 등을 소개했다.

또 그룹의 주요 관계사 CEO와의 만남, 본사 방문 투어 등 그룹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소속감 고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나유리 기자

## 카드 News



트레블월렛 15만원 혜택 출시 이벤트 이미지. /우리카드

우리카드

## 트레블월렛 이용자 캐시백·추가적립 행사

우리카드가 트레블월렛 이용자를 위해 캐시백 및 추가적립을 지원한다.

◆ 6개월 무실적 고객 5만원 캐시백  
우리카드는 ‘트레블월렛우리카드’ 출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가맹점에서 트레블월렛으로 20만원 이상 이용하면 5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캐시백을 위해서는 최근 6개월간 우리카드 이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행사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다.

오는 11월 30일까지 모든 이용자에게 국내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10만 포인트까지 적립한다. 기본 적립 서비스인 1%에 더해 최대 3%를 쌓을 수 있다.

신한카드-싱가포르항공

## 크리스플라이어 혜택 싱가포르항공카드 출시

신한카드가 싱가포르항공과의 전략적 제휴사업을 진행했다.

◆ 연 1만5000마일리지 별도 제공  
신한카드는 싱가포르항공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크리스플라이어(KrisFlyer) 멤버십 혜택을 담은 ‘싱가포르항공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용금액 1500원당 2마일리지를 적립한다. 해외·면세점·골프장·싱가포르항공 등 추가 적립처에서는 1500원당 최대 3.5마일리지 제공한다. ‘부스터마일즈’ 서비스를 이용하면 1500원당 1마일리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간 1만5000마일리지를 준다. 1000만원 이상 이용 시 5000마일리지 쿠폰을 지급한다. 2000만원 이상 사용하면 2000마일리지를 추가로 쌓을 수 있다.

비씨카드

## 네이버·유니온페이와 해외 QR 결제망 확대

비씨카드가 협업을 통해 QR코드 결제망 확대에 나섰다.

◆ EMV 규격 기반 1회성 결제정보 활용, 보안성 강화

비씨카드는네이버페이,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과 함께 ‘네이버페이 해외 QR 현장 결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중국 등을 시작으로 유니온페이 QR결제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포인트 및 머니를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QR 현장 결제 화면에서 ‘해외결제’를 설정하면 된다.

별도 환전 필요 없이 현지 화폐로 전환한다. 보유 포인트 및 충전금보다 부족한 금액은 네이버페이에 연동한 계좌를 통해 자동 충전 후 결제한다.

/김정산 기자



# 한화그룹, ‘K-방산’ 위상 뽐냈다 천무 추가 수출 등 유럽진출 박차

## MSPO 2023

폴란드 국방부 연구기관 MOU  
PGZ와 ‘호마르-K’ 제조 협력  
무인차량 등 軍 현대화 사업 참여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가 폴란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이끌어내며 미래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10일 한화에 따르면 한화그룹 방산 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시스템)는 9월 5일~8일(현지 시간)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유럽의 대표적인 방산전시회 ‘폴란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 2023’ 참가해 향후 유럽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유럽에 특화된 첨단기술 기반의 무기체계를 공급하고 폴란드 2차 수출을 위한 준비도 완료했다.

특히 전시회 기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화 전시장에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만남을 갖고 한화오션 잠수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폴란드 군비청은 전시장 야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련장로켓인 천무(폴란드명 ‘호마르-K’)를 미국의 하이마스와 나란히 전시해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월 5일 MSPO에서 폴란드 군용 자동차 및 장갑기술연구소(WITPIS)와 ‘유무인 군용 무인차량(UGV)’과 관련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WITPIS는 폴란드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오른쪽)와 세브스찬 추와크 PGZ 회장이 MOU에 서명했다

군용 차량의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무인차량 기술로 폴란드 육군 현대화 사업에 본격 참여한다. 주변의 7개국과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병력을 대신해 국경 안보를 강화할 무인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폴란드의 라즈문드 안제이작 총참모장과 스위보미르 치호츠키 군비정책국장 등도 한화 전시장을 찾았다. 이들은 미국 국방부의 해외비교성능시험(FCIT)을 진행 중인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체계 개발이 진행 중인 미래형 국방로봇인 무인수색차량에 지대지 유도 미사일인 천검을 탑재한 무기체계를 둘러봤다.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와 폴란드형 천무인 ‘호마르-K’ 제조 협력에 관한 M

OU도 체결했다. 천무 수출을 위한 2차 실행 계약에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 기술이전 승인을 받고,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폴란드가 생산하는 122mm 로켓을 천무에 적용하기 위한 공동개발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호마르K’가 기존에 ▲사거리 290km의 장사거리탄 ▲80km의 239mm 유도탄과 함께 3종탄을 확보하면 폴란드 군의 현지화 전력에 기여할 수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MOU를 통해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포병 수요에 따라 천무의 추가 수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폴란드 군의 핵심 관계자들은 한화의 해상 및 위성 솔루션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화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III 배치(Batch)-II’ 모형을 둘러본 뒤에는 3조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그램의 사업주체인 PGZ의 체자리 체어잔 이사가 ‘포괄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는 이번 전시회에서 폴란드 첨단 위성 시스템 기업인 크리오테크의 그제고시 브로나 회장을 만나 위성 사업 협업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한화시스템의 검증된 전자광학(EO)·영상레이다(SAR) 탑재체 기술력과 크리오테크의 강점인 위성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폴란드 및 유럽 소형 위성 시장 진출 방안을 구체화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디지털 콕핏

## LG전자, ‘모빌리티 랩웍스’ 공개

# “미래 모빌리티 경험해보세요”

디스플레이 3종·디지털 콕핏 2종 선택  
롤러블, 5G V2X 등 혁신 기술 적용

LG전자가 온라인을 통해 미래 자동차 기술을 소개했다.

LG전자는 최근 VS사업본부 공식 홈페이지에 ‘모빌리티 랩웍스 시리즈’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모빌리티 랩웍스는 ‘나에게 꼭 맞는 미래 모빌리티를 경험하다’를 주제로 LG전자가 진행하는 선행 프로젝트와 실험적인 기술 등을 의미한다.

홈페이지에는 차량용 차세대 디스플레이 3종과 디지털 콕핏 2종을 처음 선보였다.

디스플레이 3종은 다양한 폼팩터로 혁신 기술을 적용했다. 계기반과 전면 디스플레이 2개 등 3개를 하나로 통합한 ‘필러 투 필러’형식으로, P-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L자구조 디스플레이를 필요에 따라

넓고 좁게 사용할 수 있는 ‘Min&Max 디스플레이’와 양쪽 디스플레이가 90도로 회전하는 ‘Pop&Fold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정도를 조절하는 ‘Flex & Slide 디스플레이’ 등이다.

또 디지털 콕핏 2종 콘셉트에는 커넥티비티와 HMI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적용했다. ▲롤러블 디스플레이 ▲운전자 및 탑승객 모니터링 시스템(Cabin Monitoring System) ▲5G 통신 기반의 V2X(Vehicle to Everything, 차량-사물간 통신) 등 차량에서 즐기는 미래 기술을 엿볼 수 있다. 또 차량 내 전체 디스플레이를 통합 제어하는 최신 IVI(In-Vehicle Infotainment)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도 탑재했다.

LG전자 VS사업본부 이준배 영업·마케팅담당은 “모빌리티 랩웍스 시리즈를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LG전자만의 미래 전장 기술력을 지속 선보이며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삼성, 하반기 공채 돌입… 20개社 참여

18일까지 삼성 커리어스 통해 접수

삼성이 하반기 공채에 나선다.

삼성은 11일부터 18일까지 삼성 커리어스를 통해 공채 지원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공채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서울병원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전

자판매 등 총 20개사가 진행한다.

9월 지원서 접수와 직무적합성평가를 시작으로 10월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11월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한다. GSAT는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일부 직군은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와 디자인 포트폴리오 심사도 병행한다.

삼성은 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를 도입했으며, 5대 그룹사 중에는 유일하게 아직까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취업기회 제공, 우수 인재 육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김재용 기자

## 이스타항공, ‘B737-8’ 신기종 도입

이스타항공의 네 번째 차세대 항공기이자 8호기(HL8544)가 지난 9일 21시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했다.

10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번 8호기 도입으로 지난 6월 도입한 4호기와 8월 도입한 6호기, 7호기에 이어 총 4대의 차세대 항공기 B737-8 기종을 확보하게 됐다.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4대의 B737-8 기재 모두 제작 후 항공사에 처음으로 인도된 신규 항공기이다. B737-8 신규 항공기의 경우 정비 주기가 길고 B737-800NG 기종과 부품과 정비 호환이

70% 이상 가능해 기재 정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8호기 도입으로 이스타항공 보유 기재의 평균 기령은 6년 이하로 낮아졌다.

B737-8은 연료 효율도 B737-800NG 기종보다 15% 이상 개선돼 연료 절감과 함께 운항거리가 1000km 이상 늘어나 최대 6570km까지 운항할 수 있어 노선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이스타항공은 B737-8 기재 4대를 인천발 국제선에 집중 투입해 신기종 운영 효율을 통한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 삼성전기, ‘커피드 파워인덕터’ 양산

장덕현 사장 “파워인덕터 시장 선도”

삼성전기가 파워인덕터 2개를 칩 하나로 구현했다.

삼성전기는 커피드 파워인덕터를 양산한다고 10일 밝혔다.

파워인덕터는 ‘제2의 MLCC’로 불리는 부품이다. 전원 회로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변환해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삼성전기 커피드 파워인덕터는 2016크기와 2218크기로 나뉜다. 각각 가로 2.0mm와 2.2mm, 세로 1.6mm와

1.8mm다. CPU 주변에 탑재한다.

특히 난제였던 저항값을 낮추면서 부품 수를 줄이고 회로 설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종전에는 늘어나는 코일 저항을 줄이기 위해 파워인덕터 2개를 병렬로 연결하면서 부피가 커졌지만, 커피드 구조로 칩 하나에 구현해낸 것.

삼성전기는 MLCC로 축적한 재료 기술을 바탕으로 특성이 우수하고 손실이 적은 자성체를 독자 개발했으며, 반도체 기관 제조에 사용되는 감광공법(빛을 이용해 회로를 새기는 제조법)을 적용해 두 코일의 간격을 정밀하게



삼성전기 커피드 파워인덕터

형성했다.

삼성전기 대표이사 장덕현 사장은 “삼성전기는 세계 최고의 소재와 공법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파워인덕터 시장을 선도하는 초일류 테크(Tech)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 아비커스, 자율운항 기반 레저보트 판매

HD현대의 자율운항 전문회사인 아비커스가 자율운항 기반 레저보트 판매를 시작한다

아비커스는 이달 12일(현지 시간)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칸 요트 페스티벌 2023’에 참가해 자율운항 기술이 탑재된 레저보트를 전시하고 판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행

사에는 전략적 파트너사인 보트 전장업체 레이마린과 함께 참가한다.

아비커스는 유럽의 유명한 보트제조사들의 레저용 보트 3척에 뉴보트 도크를 전시하고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엔 출시된 뉴보트 도크는 아비커스의 최첨단 자율운항 기술을 기반으로 레이마린과 협력을

통해 개발했다. 총 6대의 카메라 시스템으로 구성된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통해 더 정밀한 충돌 회피와 접안 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임도형 아비커스 대표는 “아비커스가 레저보트용 자율운항시스템인 ‘뉴보트 도크’의 공식 출시를 통해 그동안 주력해왔던 대형상선을 넘어 레저보트 시장에서도 자율운항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 게임산업 위축 속 장기화 되는 3N ‘IP 소송’… 신작이 해답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엔씨, ‘리니지M’ 소송 원고 승소  
웹젠, 10억 등 지급 판결에 항소

넥슨-아이언메이스 공방 장기전  
넷마블도 마상소프트와 법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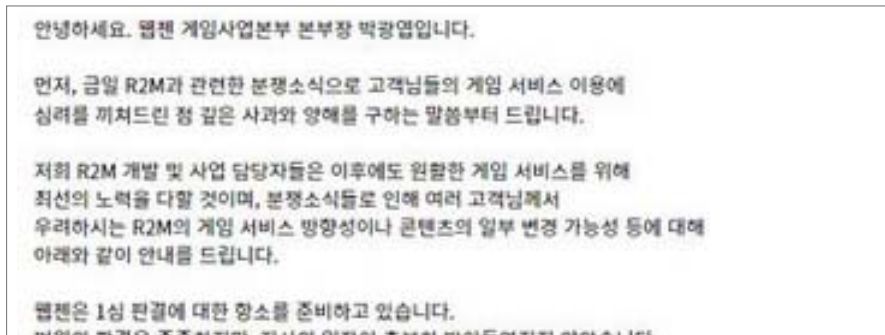
“신작없이 IP 확보 급급” 지적도

3N으로 불리는 국내 대표 게임사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이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모두 IP(지식재산권) 때문이다. 신작부재, 경영악화, 경제위기 등으로 국내 게임산업에 위기가 찾아온 가운데 수익성을 반등시킬 ‘치트키’가 IP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게임사 3N이 각각 자사의 IP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저작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우선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엔씨가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한 지 2년만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웹젠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변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웹젠은 엔씨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웹젠이 항소를 결정했다.

웹젠은 지난달 18일 양사간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웹젠 측은 “제1심 판결문을 해석한 결과, 제1심 판결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한 것으로 제

1심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엔씨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됐다”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했는데 이에 즉각 항소해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간의 법정공방은 장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 앤 다커’가 자사의 프로젝트 P3와 유사하는 점과 넥슨에서 퇴사한 핵심 개발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라는 점을 토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다는 혐의로 소송했다.

올 초에는 미국 법원에 아이언메이스와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런 가운데, 크래프톤이 최근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IP라이선스 계약을 독점 체결하면서 3사의 공방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점쳐진다.

크래프톤은 “향후 나올 사법적 판단을 제삼자로서 지켜보고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원작 지식재산의 생명력이 이어져가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넷마블은 지난달 9일 인기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세븐나이츠’가 마상소프트의 PC 게임 ‘DK 온라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법원에 서게됐다.

마상소프트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넷마블과 넷마블넥서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법원이 넷마블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마상소프트는 넷마블넥서스가 2014년 출시한 세븐나이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DK 온라인 게임엔진을 활용했다며 2021년 7월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마상소프트 측은 “넷마블넥서스와 넷마블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

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에서 법원은 “세븐나이츠가 DK온라인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마상소프트가 제출한 항소장은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찾아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입증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여진다.

이처럼 대형게임사들이 모두 소송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신작부재와 글로벌 경영위기 장기화로 민감해진 게임사들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 IP확보에만 급급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진출 기회가 낮아짐에 따라 게임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에 기존 IP를 활용해 다양하게 사업 영역을 넓혀 가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IP를 개발하고 창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결국은 신작출시가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초거대 AI 생태계 확장’ KT, 스타트업 2곳에 200억 투자

업스테이지·칸다와 전략 파트너십  
AI 풀스택 인프라로 B2B 시장 주도

KT가 초거대 AI 기술 및 사업화 생태계 확장을 위해 국내 대표 AI 스타트업들에 전략 투자하며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KT는 국내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 칸다에 20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스테이지는 오픈 LLM(거대언어모델) 리더보드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생성형 AI 성능을 보여줬고, 칸다는 20개 국가에서 교육업 랭킹 1위를 차지한 교육 특화 스타트업이다.

KT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업스테이지와 기업전용 대형언어모델(Private LLM) 솔루션 개발과 B2B 도메



지난 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M360 APAC' 콘퍼런스에서 KT를 비롯한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AI 세션에 참여한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KT

인 특화 대형언어모델 개발 등 AI 분야 B2B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칸다와는 교육 도메인 특화 대형언어모델 개발, 교육 플랫폼의 AI 확산 등 AI B2C 서비스 개발에 협력한다.

KT는 이를 시작으로 초거대 AI 사업과 경쟁력 강화 및 개방형 AI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AI 스타트업들과 사업 협력 및 투자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KT는 초거대 AI와 AI 풀스택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AI B2B 시장 저변을 넓히기로 했다. AI 풀스택은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등 AI 인프라부터 고객이 사용하게 되는 AI 응용 서비스까지 모두 아우르는 통합 상품이다.

자체 개발한 LLM과 KT클라우드의 AI 연산 인프라를 수요 규모에 맞게 탄력적으로 제공하고, 공공과 금융 산업을 위해 기업 보안을 강화한 기업 전용 초거대 AI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기업고객을 위한 경쟁력 있는 초거대 AI 서비스를 준비할 예정이다.

KT 그룹은 지난 7월에도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업 ‘모레’에 150억원의 추가 투자를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국형 AI 풀스택을 완성하고 국내 AI 솔루션 생태계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재 칸다 대표는 “칸다는 교육 LLM 모델 개발을 위해 독보적인 교육 특화 데이터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KT의 강력한 인프라와 파운데이션 모델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결합해 세계 수준의 교육 LLM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이번 KT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성능의 LLM을 개발해 우리의 미션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는 AI를 함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앞으로 양사의 발전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문장(부사장)은 “KT와 국내 대표 AI 스타트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국내 초거대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며 “국내 AI 스타트업들과 협력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SKT-SK렌터카, 국내 최대 전기차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 승인

매년 감축되는 온실가스 모니터링  
검증 통해 2025년부터 KOC 확보

SK텔레콤은 SK렌터카와 함께 추진한 국내 최대 전기차 활용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이고, 해당 기업이 타 기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기업은 외부사업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

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활용하거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SK렌터카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기대되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성에 주목하고, 2020년 10월 양사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제주 지역에서 파일럿 감축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양사는 지난해 11월 외부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 협업에 나섰다. 이번 사업에서 SK렌터카는 사업 기획 및 운영, 전기차 도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담

당한다. SK텔레콤은 기존 자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기획 및 운영과 정부의 사업 타당성 검토·평가 관련 절차 등을 지원했다.

외부사업은 SK렌터카가 ‘K-EV 100’ 로드맵에 따라 구매·운영할 계획인 전기차 28만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해 감축실적을 인증받는다. 사업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0년 간인 2033년까지다. 이 기간 동안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은 총 39만2104톤인데,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28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다.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전기차 운행 데이터는 SK텔레콤 IoT 전용망을 통해 SK렌터카가 독자 개발한 전기차 전용 차량관리 솔루션 ‘EV 스마트링크’에 수집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승인을 시작으로 매년 감축되는 온실가스를 모니터링하고, 제3자 검증과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인증실적(KOC)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실적 판매 수익에 대해 렌탈료 할인에 반영하는 등 고객에게 혜택 돌려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인증실적 판매 수익을 고객에게 환원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또 다른 주체인 전기차 이용 고객이 감축 성과를 직접 체감하고 친환경 활동 실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준호 SK텔레콤 ESG추진담당은 “앞으로도 SK텔레콤이 보유한 ICT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전개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SK텔레콤의 넷제로 달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 WINE PICK S

CHEONGDAM

청담점



## 와인픽스 청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와인픽스,  
와인, 맥주, 위스키, 기타주류, 글라스,  
칵테일 시럽, 치즈&사케테리까지,  
주류와 관련된 3,000여종의 상품을  
청담 플래그십 점포에서 만나보세요!

주소 | 강남구 청담동 1-1 퍼스트 빌딩 1층  
영업시간 | 월~일, 11:00~21:00

## ☑ OPEN EVENT

Grand Open : 9/1(금)

Grand Open Promotion : 9/1(금)~30(토)

오픈 행사 상품은 멤버십 가입 고객에 한하여  
9/1(금)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 당일 가입 가능)



와인픽스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winepick\_s



# 황제주 ‘에코프로’ 급락… 개미들 주가방어에도 공매도 몰려

2차전지株 변동성 확대 시기 진입  
에코프로 주가 이달에만 18.7% ↓  
기관·外人 각 65억·1210억 순매도  
개인투자자 홀로 1184억 순매수

코스닥시장 사상 5번째 ‘황제주’인 에코프로의 주가가 8월들어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가 방어에도 공매도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주에는 이틀 연속 장중 100만원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2차전지주의 투자 메리트가 떨어짐에 따라 변동성 확대 시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의 주가가 이달에만 18.7% 급락했다. 특히 전장보다는 4.19% 내렸던 7월 종가는 100만6000원으로 7월 28일 이후 최초로 종가기준 100만원대에 근접했다.

에코프로는 연초 11만원으로 시작했지만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맹목적인 지지를 받으며 ‘황제주’에 등극했다. 가파른 급성장에 증권가에서는 비상식

적인 과열 구간이라고 평가하며 분석에 손을 뗐던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2차전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관련 업종주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2차전지 업종 주가는 올해 초부터 양극재 업체들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주가 과열 양상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며 “단기간 급등한 만큼 주가 조정에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가 급락했던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투자자별 거래 실적을 살펴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65억, 1210억씩을 순매도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홀로 1184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주가를 방어하는 양상이었다. 다만 장중 100만원선을 하회하기도 했던 7일에는 개인이 홀로 327억을 팔아치웠다. 이날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2차전지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31일부터는 에코프로의 공매

도 잔고도 급증했다. 이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3986억원이었다. 전날 공매도 잔고 83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약 50% 수준의 공매도가 몰린 것이다. 이어 다음날이었던 이달 1일 공매도 거래대금도 1094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행사하는 매도주문으로 ‘없는 주식을 파는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매매차익을 노리기 위한 투자 전략이다. 최근 2차전지주 관련 호재성이 떨어졌을 뿐더러 주가가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판단 하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달은 예고됐던 2차전지 업황의 부진을 확인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주가 레벨이 최근 많이 낮아진 상태여서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국제유가 연중 최고치 기록 에쓰오일 주가 6.85% 상승

metro 관심종목

정제마진 상승해 수익성 높아지고  
재고자산 가치 올라 재무구조 좋아져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에쓰오일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인한 공급 축소 우려로 에쓰오일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정유 업종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에쓰오일의 주가는 이달 들어 6.85% 상승하며 금호석유(3.53%), 롯데케미칼(1.98%) 등 다른 석유화학주들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이같은 상승에는 국제유가 급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통상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정제마진’이 상승해 수익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원유 재고자산 가치도 오르면서 재무구조도 좋아진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정제마진은 배럴당 12.7달러로 지난 7월(6.6달러) 대비 두 배 뛰었다. 정제마진은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를 포함한 원료비를 뺀 것으로, 보통 배럴당 5달러가 손익분기점인데, 이를 훨씬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지난 7월부터 진행한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 정책을 12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다 러시아도 하루 30만 배럴의 석유 수출 규모 축소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와 정제마진이 연이어 상승하고 있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름철 이동수요 증가와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면서 원유와 정유제품 재고는 계속 감소 중이고 여기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자발적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하며 유가 반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공급부족 기조가 심화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함에 따라 에쓰오일의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유안타증권은 에쓰오일의 3분기 영업이익을 7838억원으로 추정했다. 정유부문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다. 정유부문 예상 이익은 4833억원으로 예상했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에쓰오일이 2분기는 부진하지만, 3분기에는 1년래 영업이익이 최고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와 내년 에쓰오일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13%, 10% 상향 조정했다. 최고운 연구원은 “지금의 석유 시장은 공급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화석연료 산업은 유가가 오르더라도 생산능력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초 미국의 석유 시추 건수는 연초 대비 100건 이상 감소했고, 과거와 달리 OPEC 플러스(OPEC+) 역시 감산 기조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정유업계도 친환경 신사업 영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 정제 능력은 정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분간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될 것인 전망에 증권사들은 에쓰오일 주가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은 에쓰오일의 목표주가를 기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했다. 유안타증권은 에쓰오일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1만원을 유지했다.

/원관희 기자 wkh@



‘더샵 소양스타리버’ 투시도.

## 청약 경쟁률 높은 지역 수요·미래가치 검증 돼

지방 분양시장의 침체와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는 청약 성적이 양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단지는 수요와 미래가치가 검증된 것이 특징이다.

10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지방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은 평균 85.39대 1을 기록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다. 이어 ▲대전광역시 서구 68.67대 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32.31대 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8.36대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7.75대 1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의 경우 110가구 모집에 9393건의 청약 통장이 몰렸다. 단지가 들어서는 에코시티는 쾌적하고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지역민들의 주거 선호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10월 강원 춘천시 소양로2가 일원에서 ‘더샵 소양스타리버’ 39~112㎡, 1039가구 중 85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춘천IC, 중앙고속도로 춘천IC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이 수월하다. 단지 주변으로는 북한강, 봉의산, 춘천평화생태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이규성 기자 peace@

## 서울 아파트값 16주째 올라… 상승폭은 위축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이어가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올랐지만 전주 대비 상승폭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는 26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2주 연속 하락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9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55주 만에 상승 전환돼 16주 연속 오름세다. 8월 셋째 주(0.14%)와 8월 넷째 주(0.13%)에 이어 이번주까지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 성북구(0.15%→0.14%)가 길음·정릉동, 용산구(0.19%→0.17%)는 도원·이촌동 주요 단지, 동대문구(0.20%→0.17%)는 장안·전농동 대단지, 광진구(0.12%→0.13%)는 자양·구의동 신축 위주로 상



서울 시내 아파트 일대 모습.

/뉴시스

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상승거래 이후 매물 가격에 대한 상향 조정이 유지되면서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매물 소진 후 매수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주 연속 하락했다. 9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9.0으로 전주(89.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3월 첫째 주 이후 25주째 오르던 상승세가 멈추고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대환기자 kdh@

## 하이투자증권, ‘하이 소액국채 랩’ 추천

시중금리보다 높은 성과 추구

하이투자증권은 소액국채 거래를 통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하이 소액국채 랩’을 추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자산의 대부분을 국민주택 1종 채권에 투자한다. 국민주택 1종 채권은 정부에서 국민주택사업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한국의 채무불이행 선언 전까지는 원금이 보장돼 안정성이 매우 높다.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채권 매수가 가능한 소액채권매매제도의 특징을 활용해 국민주택 1종 채권을 당일 신고가

격에 매수하고, 익일 시가에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매매차익 확보를 추구한다. 채권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국채 매수금액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은 전액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환매 조건부채권(RP) 등으로 운용되며, 고객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중도 수수료 없이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1인당 1000만원이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전액 해지만 가능하다. 상품 문의는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및 디지털 컨택센터로 하면 된다.

/신하은 기자

## 9월 둘째주, 전국 6개 단지 2624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인천 ‘제일풍경채계양위너스카이’ 등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2624가구(일반분양 237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 계양시 효성동 ‘제일풍경채계양위너스카이’, 경기 수원시 오목전동 ‘오목천역더리브’, 광주 북구 동림동 ‘운안산공원우미린리버포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건보주택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유보라마크브’, 부산 남구 대연동 ‘더비치푸르지오써밋’ 등 5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제일건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 ‘제일풍경채계양위너스카이’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전용면적 59~84㎡, 아파트 1343가구

(A블록 5개동 777가구, B블록 4개동 566가구)와 전용면적 53~82㎡, 오피스텔 97실로 조성된다. 단지 앞에 효성문화공원과 효성수영장이 조성될 예정이며, 대형마트, 관공서 등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대우건설은 부산 남구 대연동 일원에 대연4구역을 재건축해 짓는 ‘더비치푸르지오써밋’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3층, 8개동, 총 1384가구 규모의 후분양 아파트로, 이중 전용면적 59~114㎡, 39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인근에는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과 경성대부경대역이 위치했다. 주변에는 대학가 상권과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수변공원 등 편의시설이 풍부하다. 남천초, 남천중, 대연고, 경성대, 부경대, 남천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김대환 기자



# “자신감·용기 회복 도와… 기업인들 재기 위해 문 활짝”

##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재도전 힐링캠프’

경남 통영 앞바다에 있는 섬 죽도가 실패했다 일어나려는 재기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성지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통영여객터미널에서 배로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한산면 죽도에 있는 재단법인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이 한때 중단했던 ‘재도전 힐링캠프’의 문을 열면서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은 2011년부터 재도전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주간의 캠프를 1년에 서너 차례씩 진행해 지난해까지 28기에 걸쳐 총 435명의 수료생을 배출, 다시 사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 가운데 56.3%인 245명이 재창업에 성공했다.

1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은 올해 하반기에 29기, 30기 재도전 힐링캠프 참가자들을 모집한다. 교육은 사업에 실패했다 재도전을 하려는 중소기업 경영자, 소상공인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희망하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기수당 25명 안팎이 정원이다.

29기는 오는 10월8일부터 28일까지, 30기는 11월12일부터 12월3일까지로, 죽도에서 3주간 합숙하며 재도전을 준



경남 통영 한산면 죽도에 있는 사단법인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전경.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입교생들이 바다를 보면서 수련을 하고 있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재도전 기업인 위한 ‘무료’ 캠프 하반기 두차례 캠프 참가자 모집 수료생 435명 중 245명 재창업

캠프 3주간 1인 텐트서 생활하고 스마트폰·TV 등 외부접촉 불가 “아름 겪은 후배 재기 돕고싶어”



MS코퍼레이션 전원대 회장이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비한다.

시작한지 10년이 훌쩍 넘은 죽도의 재도전 힐링캠프는 과정이 혹독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우선 교육생들은 3주간 1인 텐트에서 생활해야한다. 평일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외부와의 연락은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고 TV, 라디오 등 미디어 접촉도 안된다.

새벽에 기상해 체조, 걷기, 명상을 하고 특정일엔 금식도 해야한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 관계자는 “재도전 힐링캠프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심리적 상처를 치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교육에 방해되는 요소를 철저히 차단해 교육생들이

캠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과정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은 스스로 참여하는 체험식 과정으로 진행한다. 3주간의 교육기간 동안 명상과 묵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텐트야영, 예코힐링, 100배 절명상, 농활체험, 숲 불견기 등의 과정도 두루 포함돼 있다.

죽도에서 진행되는 재도전 힐링캠프는 한마디로 ‘비움’과 ‘채움’의 연속이다.

그렇다고 ‘극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기업가정신을 회복하고 재도전 성공을 위한 사례 학습, 전문가들의 개별 컨설팅도 진행한다.

교육은 종교인, 심리전문가, 기관장, 재도전 교육전문가, 성공한 기업인, 사

회 유명인사 등의 재능기부로 이뤄진다. 무엇보다 3주간의 힐링캠프에서 교육생들이 내야하는 비용은 모두 무료다.

죽도의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은 부산지역 기업가인 M S코퍼레이션 전원대 회장이 사재를 털어 만든 곳이다.

전원대 회장은 70년대에 자신이 창업한 수소 제조 공장이 폭발, 직원을 잃고 결국 공장을 닫아야하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이후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한때 목숨을 버릴 생각까지 했었다. 전 회장이 삶의 끝에서 우연히 만난 곳이 죽도였다.

전 회장은 “나와 같은 패배의 아픔을 경험한 후배 기업인들의 재기를 돕고 싶었다. 그래서 사재를 털어 폐교를 재기중소기업개발원으로 만들었다. 코로나19기간에 중단했던 힐링캠프를 다시 시작하게 돼 기쁘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은 다시 일어나려는 이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죽도의 재기중소기업개발원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언덕에는 ‘목은 마음 비워서 맑고 둥근 마음만 가득 채워 가는 곳’이라는 의미인 ‘허밀청원’이란 글씨가 있다. 이는 전 회장이 손수 지은 글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中企 84% “자금사정, 작년과 같거나 나빠져”

중기중앙회, 추석자금 수요조사 곤란하다 27%, 원활하다 16% 원인 78% ‘판매·매출부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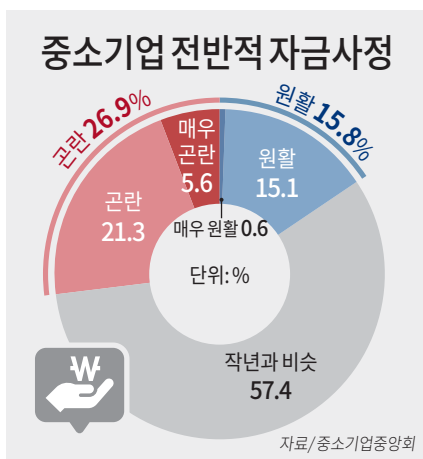
중소기업 대부분의 추석 자금사정이 지난해와 다르지 않거나 나빠진 가운데 평균 1200만원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족한 자금에 대해선 ‘납품대금 조 기회수’가 가장 많은 가운데 ‘대책 없다’는 답변도 10곳 중 3곳에 가까웠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21일부터 9월1일까지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추석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해 10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 지난해 추석에 비해 올 추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26.9%로, ‘원활하다’는 응답(15.8%)보다 높았다. ‘전년 수준’이란 답변은 57.4%를 차지했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주요 원인(복수 응답)은 ‘판매·매출 부진’(77.7%)이 압도적인 가운데 ▲인건비 상승(36.7%) ▲원·부자재가격 상승(33%) ▲대금회수지연(11.6%) 등의 순



이었다.

올해 추석 자금으로 평균 1억156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1280만원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필요금액(1억5700만원)과 부족금액(2200만원) 모두 감소했다.

모자란 추석자금 확보 방안(복수 응답)으로는 ▲납품대금 조 기회수(44.4%) ▲금융기관 차입(20.4%) ▲결제 연기(19.4%) 순으로 많았다.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도 25.9%였다.

한편, 중소기업 2곳 중 1곳(48.3%)은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상여금 지급 비율이 전년(37.3%) 대비 11%p 증가했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전년보다 증가해 정률 지급시 기본급의 50%에서 올해 53.7%(+3.7%p)로, 정액 지급시 1인당 40만2000원에서 올해 44만7000원으로 11.2% 각각 늘었다.

응답기업 10곳 중 4곳(39.4%)은 추석 공휴일(9월28~10월1일) 이외에 ‘추가 휴무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휴무기간은 임시공휴일인 10월2일과 개천절(10월3일)을 포함해 평균 1.5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추석 자금수요 규모 감소는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긴축경영을 바탕으로 수출 감소와 내수부진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며 “고금리·유가 상승 등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내수진작과 수출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중견련, 중견기업 핵심기술 보호 지원강화

기술보호협회와 업무협약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손잡고 중견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전방위 지원을 강화한다.

10일 중견련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협회와 ‘중견기업 보안 역량 강화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급증하는 산업기술 유출 사고로부터 중견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견기업 전용 산업기술 유출 신고 채널 구축, 공동 침해 조사 및

대응, 보안 역량 강화 컨설팅 및 기술보호 교육, 기술 유출 방지 정책·지원 사업 확대 건의 등에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국가핵심기술의 약 31%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기술 혁신의 중심”이라면서 “독보적인 기술력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글로벌 무대에서 자웅을 겨루는 중견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혁신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한샘 “썸페스타 인기상품이 990원부터”

창립 53주년 기념 이벤트 ‘99딜’

한샘이 창립 53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대표 리빙 페스티벌 ‘썸페스타’의 대미를 장식하는 할인 이벤트 ‘99딜’을 진행한다.

10일 한샘에 따르면 99딜은 썸페스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상품을 990원부터 판매하는 이벤트로 11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는 지난 53년 간 꾸준한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마련했다. 가을 혼수나 이사, 신학기 맞이로 집꾸밈을 계획 중인 고객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99딜 이벤트에서는 먼저 ▲밀란100 퓨어화이트 부엌 ▲밀란100 퓨어그레

이 부엌 ▲밀란1 마이트 욕실 ▲밀란3 리버하이트 욕실 등 인테리어 공사 상품을 22%~24%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또한 ▲아임빅 수납침대 ▲바이엘 채널 불박이장 ▲샘퍼레트 책장 ▲샘키즈 수납장 ▲아카이브 거실장 ▲포레 컴포트 식탁 및 의자 ▲로이드미 EVA 11세대 올인원 로봇청소기 등 가구는 28~58% 할인하며 ▲오동나무 우드 블라인드 ▲허드 가죽 체어 등 생활용품은 990원부터 판매한다.

썸페스타는 인테리어 공사, 가구, 생활용품 분야를 총 망라한 대한민국 대표 리빙 페스티벌이다. 올 상반기 고객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약 500종의 상품을 지난 8월부터 최대 91% 할인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귀뚜라미, 콜센터품질지수 3연속 ‘우수기업’

가정용보일러 부문 선정

귀뚜라미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3 콜센터품질지수(KS-CQI)’ 조사에서 가정용보일러 부문 3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10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스마트하고 쾌적한 고객만족 서비스 제

공을 위해 콜센터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상담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제도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4시간 365일 접속할 수 있는 ‘귀뚜라미보일러 카카오톡 채널’은 높은 편의성을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있다. 특히 ‘A/S 접수하기’ 메

뉴를 통해 대기시간 없이 간단하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 보일러 관련 문의가 집중되는 동절기에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카카오톡 채널은 서비스 도입 5년 만에 업계 최대인 가입자 수 35만명을 달성했다. 고객센터 전체 A/S 접수량의 30%를 귀뚜라미보일러 카카오톡 채널에서 소화하며 상담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수출기업 수요, ㅍ 신시장으로 이동 고용·규모 따라 애로사항 제각각

무협, 해외 비즈니스 수요 실태조사  
美·베트남·인도 순으로 변화 전망  
실적 등 따라 파트너 고려 國 달라  
향후 선호도 높은 국가 지원 확대  
역조현상 방지... 부담 경감 필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비즈니스 수요가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출 기업의 애로가 고용·수출 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업 대상 수출 지원 사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무역협회의 ‘해외 비즈니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5대 해외 비즈니스 대상국은 현재 미국(26.6%), 중국(15.1%), 일본(10.8%), 베트남(7.4%), 독일(2.9%) 순에서 향후엔 미국(22.9%), 베트남(8.7%), 인도(7.3%), 중국(7.0%), 일본(5.2%) 순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10일~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됐으며 906개사가 응답했다. 응답 기업 중 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34.4%였다.

향후 중점 비즈니스 대상국을 묻는 질문에 아시아 주요 신흥국이 강세를 보였다. 1위 비즈니스 대상국은 여전히 미국이었으나, 응답비율은 3.7%포인트 하락했다. 미국에 이어 베트남이 현재 4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인도(3←6), 인도네시아(10→7), 말레이시

|          |             |          |           |            |
|----------|-------------|----------|-----------|------------|
| 미국(26.6) | 중국(15.1)    | 일본(10.8) | 베트남(7.4)  | 독일(2.9)    |
| 인도(2.3)  | 러시아(2.2)    | 대만(2.0)  | 싱가포르(1.7) | 인도네시아(1.7) |
| 멕시코(1.7) | 브라질(1.7)    | 태국(1.5)  | 폴란드(1.5)  | 말레이시아(1.4) |
| 필리핀(1.4) | 아랍에미리트(1.1) | 홍콩(1.1)  | 영국(1.1)   | 방글라데시(0.9) |

응답 기업별로 최대 3개국까지 선택

|           |            |             |            |          |
|-----------|------------|-------------|------------|----------|
| 미국(22.9)  | 베트남(8.7)   | 인도(7.3)     | 중국(7.0)    | 일본(5.2)  |
| 독일(4.1)   | 인도네시아(3.8) | 사우디(3.1)    | 말레이시아(2.1) | 태국(1.9)  |
| 영국(1.9)   | 이탈리아(1.8)  | 프랑스(1.8)    | 멕시코(1.8)   | 러시아(1.5) |
| 싱가포르(1.5) | 대만(1.4)    | 아랍에미리트(1.3) | 필리핀(1.3)   | 호주(1.3)  |

20위권 신규 진입 및 순위 상승 국가 음영 표시

아(15→9) 등이 새로운 중점 비즈니스 대상국으로 부각됐다.

사우디아라비아(8위), 이탈리아(12), 프랑스(13), 호주(20)가 20위권에 신규 진입한 반면, 홍콩, 브라질, 폴란드, 방글라데시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수출 실적이 큰(1000만달러 이상) 기업은 인도를, 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은 베트남과 중국을 향후 중점 비즈니스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은 향후 비즈니스 대상국으로 일본과 중국을, 고용 규모가 작은 기업은 베트남을 상대적으로 선호했다.

고용 인원이 많고 수출 실적이 큰 기업일수록 현지 투자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의 해외직접투자의 주된 요인은 해외 대비 높은 국내의 인건비 및 생산비용과 법인세 부담 등 비

용 요인(49.2%)으로 나타났다.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복수응답)으로는 ‘현지 바이어·파트너 발굴 어려움’(61.4%), ‘현지 시장 정보 부족’(40.1%), ‘상대국 수출입 관련 규제’(38.6%), ‘무역보험 등 금융 지원 부족’(23.9%), ‘대금 회수 어려움’(18.1%) 순이었다.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향후 해외 비즈니스 선호도가 높은 국가를 타깃으로 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업특성별 수요를 고려한 기업군별 맞춤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 직접 투자의 국내 유입보다 해외 유출이 더 큰 투자 역조현상에 따른 일자리 해외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 기업 부담 경감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韓, 亞 19개국과 ‘파리협정’ 대응 논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배양 연찬회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10일 아시아 19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배양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13일까지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파트너십(PATPA)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투명성 역량배양이

니셔티브-글로벌 지원 프로그램(CBIT-GSP)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내년부터 2년마다 보고서(격년투명성보고서)를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가 온실가스배출량·흡수량 및 감축목표 이행·달성 현황 등의 정보를 담게 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정보를 국

제사회에 보고한 경험이 부족해 사전적인 준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독일 정부와 함께 아시아 지역 담당자들의 보고 역량 배양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베트남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9개국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 담당자 40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파리협정 아래 강화된 투명성체계에 따른 보고·검토 체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현황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고용부, 폭언·폭행 일삼은 더케이텍(주) 적발

총 17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확인  
형사 입건·과태료 부과 등 조치

고용노동부가 10일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일삼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대표이사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왔다. 또 직원 채용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한 사실이 확인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00만 원의 임금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며 형사 입건(9건), 과태료 부과(2200만원)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감독 결과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대해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내년 귀농·귀촌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 지원규모 3배 증가

농식품부,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  
정부 예산안 48억 → 152억 편성  
2026년까지 35개소로 확대 예정

내년 귀농·귀촌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농촌 임대주택 지원사업 규모가 올해보다 3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48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52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은 농촌 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9개소가 선정됐으며, 이 중 2019년도 시범 4개소는 총 123세대 입주가 완료됐으며 2024년 17개소, 2025년 25개소, 2026년 35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농촌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는 지자체 수요가 많고 입주민 만족도가 높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아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고려돼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증액됐다. 또, 2024년 8개 신규지구 및 총사업비 단가(80억원 → 90억원) 상승 등도 반영됐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농진청, 가루쌀로 생산성 높은 고추장 개발

샘표식품 기술연구소와 연구

장류 제조에 필요한 수입 원료 수급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가루쌀을 활용해 생산성을 2배 높은 고추장 제조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10일 샘표식품 기술연구소와 함께 신품종 가루쌀 ‘바로미2’를 이용한 ‘100% 국산 쌀 고추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일반 쌀보다 단단한 정도가 낮아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물 흡수도 빨라 밀가루를 대체할 가공 원료로 재배되고 있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샘표식품 기술연구소 우리발효연구중심과 함께 바로미2의 최적 전처리와 발효 조건을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바로미2를 2주간 발효해 만든 쌀 발효물을 50% 이상 넣어 100% 국산 쌀 고추장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고추장을 만들었을 때 가공

공정 중 물과 결합해 수화물이 되는 데 걸리는 수화시간은 75%, 발효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 한 해 기준 우리나라 고추장 생산성은 최소 2배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루쌀 고추장으로 한식인 제육볶음을 만들었을 때 향미는 다른 국산 쌀로 만든 고추장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양식인 닭봉 구이에서는 누린내를 잡았고, 요리와의 조화성도 높다는 반응이다.

샘표식품 기술연구소 우리발효연구중심 최용호 실장은 “최근 장류 제조를 위한 수입 원료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 원료인 가루쌀을 활용한 고추장 제조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진청 발효가공식품과 송진 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산 가루쌀이 고추장 제조에 적합하다는 정보가 확보됐다”며 “앞으로 장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효식품에도 이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고령층 퇴직공제금 청구, 집배원이 돕는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한 달간 시범운영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한 고령층 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청구를 돕기 위해 우체국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제회는 10일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할 예정”이라며 “제도를 안내하고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11일부터 실시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충족 고지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적립된 사

실 또는 청구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집배원 서비스는 이달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는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간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관련 각종 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왔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본인에게 적립되어있는 퇴직공제금을 알고 청구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미 선택한 검증된 학습법 링크

# 과목/ 수준 모두 “ 선택할 수 있는 진짜 **맞춤** 학습 ” 링크를 경험해 보세요

한글(국어), 수학, 영어 모두 시작하려는 아이도  
영어만 지금 필요한 아이도 모두 OK!



지금 무료체험 신청시,  
알파벳 + 수학 브로마이드 2종도 선물!



수학  
브로마이드



알파벳  
브로마이드



1위 학습 링크, 무료체험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우측의 QR 코드를 통해 링크 무료체험을 신청하세요!





# 포항에 1.5조 투자, 국내 첫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

산업부·SK에코플랜트 등 8곳 맞손  
블루밸리산단에 30MW 데이터센터  
국제 해저광케이블 육양국 들어서

경북 포항에 국내 최초로 ‘육양국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가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시, SK에코플랜트, DCT텔레콤, KB자산운용,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8개 기관은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육양국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태욱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심장석 DCT텔레콤 대표이사, 김형윤 KB자산운용 대체투자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S



경북도는, 포항에 국내 최초로 ‘육양국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조성한다. (왼쪽에서 여섯번째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K에코플랜트와 DCT텔레콤·KB 자산운용은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에 총사업비 1조 5200억 원을 투자해 30MW 데이터센터 4개동과 국제 해저광케이블 및 육양국을 2028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국가 간 통신의 99%를 처리하는 국제 해저광케이블 기지인 육양국과 연계한 더욱 빠르고 저렴한 국제통신망을 이용해 글로벌 수요를 겨냥한 다수의 데이터센터가 집적되는 점으로,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산업 모델이다.

포항에 투자되는 ‘육양국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인프라로 동북아시아 국제통신망의 주요 거점 역할과 함께, 수도권과 부산 중심의 상업용 데이터센터 관련 산업이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협약에서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전력 공급 및 인·허가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착공을 앞둔 경북도청 신도시 KT 공공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이어, 포항에 대규모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가 들어서면 경북은 AI·빅데이터 등 첨단 지식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경북이 디지털 경제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metroseoul.co.kr

## 금감원·지자체·금융권 6곳 협업해 英 런던서 ‘부산 금융’ 등 적극 홍보

13일 ‘공동 런던 투자 설명회’서  
기반시설·디지털 금융 혁신 등 알리

세계 금융·투자 기관이 밀집해 있는 국제 금융의 중심지 영국 런던에서 우수한 금융 기반 시설을 가진 ‘부산 금융’을 홍보한다.

부산시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13일 오전 10시 영국 로열 랭커스터 런던 호텔에서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 설명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설명회는 한국 금융 산업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의 금융 중심지인 부산시와 서울시, 그리고 6개 금융 회사가 최초로 협업해 개최하는 대규모 투자 설명회다.

금융감독원장, 부산시 행정부시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6개 금융회사 대표단(신한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미래에셋증권 회장,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삼성생명 사장, 코리안리 대표이사), 주영국한국대사,

영국 외무부 부장관, 주한영국대사, 한국투자공사 본부장, 부산국제 금융진흥원 원장, 해외 투자회사 임직원, 투자자 등 230명 내외가 참석한다.

이번 투자 설명회에서 영국 정부 관계자, 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 금융 산업의 강점과 투자매력, 그리고 한국의 금융 중심지인 부산과 서울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금융도시인 영국 런던에는 각국의 금융 기관들과 투자 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투자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영국 정부 관계자, 해외 투자자에게 한국의 금융 중심지이자 동북아시아 관문 도시로서 발전하고 있는 부산의 우수한 금융 기반 시설과 디지털 금융분야에서의 혁신 정책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산 진출·투자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들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

## 울산 120 해울이콜센터, 광역지자체 1위

KS-CQI 평가서 4년 연속 달성

전화기 속의 작은 시청, ‘울산 120 해울이콜센터’가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3년 콜센터 품질지수(KS-CQI)’ 평가 ‘광역지자체’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울산 120 해울이콜센터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1위 달성과 함께 9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KS-CQI는 국내 콜센터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국표준협회에서 개발한 콜센터 상담 서비스 품질 지수다.

올해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54개 업종에 대해 217개 기업과 38개 특·광역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콜센터 이용 고객 만족도’(7개 항목)와 ‘전화 모니터링 평가’(5개 항목)를 조사해 전체 평균보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다 높은 성적을 낸 콜센터를 ‘우수콜센터’로 선정했다.

울산 120 해울이콜센터의 올해 콜센터 이용 고객 만족도 및 전화 모니터링 평가 항목 합산 점수는 80.5점으로 전체 평균 76점보다 4.5점 높았으며, 특히 특·광역시 가운데 12개 전 항목 점수가 평균 점수보다 높은 콜센터는 울산시가 유일하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경남도, 진해신항 발주에 건설산업 활기

총사업비 확정 후 입찰공고 예정

경남도는 창원시 진해구 진해신항 건설을 위한 대형공사 발주가 순차적으로 계획됨에 따라 지역 건설산업 활기가 기대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진해신항 건설을 위해 기반시설인 남방파제(1단계), 남측방파호안, 준설도투기장(3구역) 호안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최근 길이 1.4km의 남방파제 1단계 축조공사 총공사비를 확정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단기) 방식으로 발주(사업비 2944억 원)하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소시업과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신항 조감도.

또 길이 1.8km 남측방파호안과 5.9km의 준설도투기장(3구역) 호안 축조공사도 하반기 발주를 목표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설계시공 일괄입찰(단기) 방식으로 입찰공고할 계획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

### UAE와 재생에너지 등 협력 도모

전남도가 세계 속의 대도약을 위해 아랍권과의 교류 물꼬를 댔다.

전남도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재생에너지, 스마트팜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아랍에미리트의 셰이크 아흐메드 빈 파이살 알 카시미 왕자(로얄패밀리 오피스 소유주) 일행이 지난 9일 전남을 방문해 해남 솔라시도와 강진 스마트팜을 둘러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전남=양수영 기자

광주시

### 도시재생 사업 후보지 선정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공모 2023년 상반기 도시재생 사업 후보지로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중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5년간 국비 250억 원을 지원받고, 통합심의 등 행정적 지원과 함께 건축규제 완화 등이 가능하다.

송암산단 혁신지구 사업은 산단 내 유희부지에 5년간 16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문화·디지털 모빌리티 애프터마켓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하동군

### 도시 브랜드 ‘별천지 하동’ 확정

전국 공모와 수차례 군민 설문을 거쳐 만들어진 하동군 도시브랜드 명칭과 이미지가 최종 확정됐다.

하동군은 군민의 공감과 선택으로 선정된 하동군 도시 브랜드 ‘별천지 하동’을 최종 선정했다.

‘별천지 하동’은 지난해 11월 시작해 전국 공모, 명칭·이미지 설문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군민과 함께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특히 도시 브랜드 전국 공모에는 1289건이 접수됐으며, 하동 군민을 대상으로 한 1~5차에 걸친 설문 조사에서는 총 2826명이 참여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김천시

###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진행

김천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문화 조성을 위해 작년에 이어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개최 중이다.

올해 행사는 2회에 걸쳐 추진 중이며 1차 행사는 지난 5월 진행됐고, 2차 행사는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행사는 전용 앱 ‘에코바이크’와 추진된다. 스마트폰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에코바이크’ 앱을 내려 받아 회원가입 및 참여 도시를 선택하면 된다.

/김천(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 전남도, 유해시설 정비에 국비 138억 확보

농식품부 ‘농촌 공간정비사업’ 선정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공간정비사업 2023년 3차 공모에 담양 삼만지구, 해남 금호지구가 선정돼 국비 1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촌 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마을 인근의 공장, 빈집, 축사 등 유해시설을 정비해 주거·서비스·일자리 기반시설 구축 등 공간재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시행, 전남도는 10개 시군 11개 지구가 선정돼 총 사업비 1천 357억 원 중 국비 678억 원을 확보했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담양 삼만지구와 해남 금호지구의 정주환경 위해요소를 철거하고 재생시설을 설치해 해당 지구가 농촌다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시군에서 농촌 공간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정책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미디어아트로 강릉 동대굴 표현… 새로 ‘이색 생일잔치’

롯데칠성 ‘새로 02-57 동굴’ 팝업  
‘제로슈거 소주’ 새로, 출시 1주년

구미호 캐릭터 인형 등 굿즈 판매  
예약자에 새로구미 한복 체험도

1년만에 분기 매출 25억→320억  
소주 점유율 15%→20%로 확대

MZ들의 놀이터로 자리매김한 성수동에 이색 지하 동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설의 동물 ‘구미호’ 벽화가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은 롯데칠성음료가 제로 슈거 소주 ‘새로’의 출시 1주년을 맞이해 문을 연 팝업스토어 ‘새로 02-57 동굴’이다.

지난해 9월 출시해 올해로 1주년을 맞은 ‘새로’는 과당을 사용하지 않아 산뜻하며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 제로 슈거 소주다. 새로는 브랜드 앰배서더 ‘새로구미’ 캐릭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치며 출시 7개월여 만에 누적 판매 1억 병을 돌파하는 등 국내 제로 슈거 소주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다.

롯데칠성음료는 오는 25일까지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데어바타테’에서 ‘새로 02-57 동굴’을 열고 고객들을 만난다. ‘새로02-57 동굴’은 새로구미와 함께 하는 생일잔치 콘셉트로 기획됐다. 새로구미의 출생지인 강릉 동대굴의 지번 주소 257과 서울의 지역번호 02를



새로02-57 팝업스토어에서 새로 소주 칵테일을 맛볼 수 있다.

/메트로 DB

활용해 서울 도심 속에 나타난 새로02-57 동굴을 표현했다.

팝업스토어는 신비로운 동굴 형태의 소비자 체험 공간인 포토존, 미디어아트 관람존, 굿즈존, 시음존으로 구성됐다.

관람객은 새로구미 소품을 직접 착용하고 360도 회전 카메라로 촬영하는 이색적인 포토존과 동굴 콘셉트의 다양한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미디어아트 관람존에서는 동굴의 종유석, 물결 등을 표현한 미디어아트와 움직임에 따라 새로구미가 환영 인사를 건네거나 미디어가 바뀌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를 통해 실제 강릉 동대굴에 온 듯한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굿즈존에서는 ‘새로’ 앰배서더 새로구미의 구미호 캐릭터를 살린 인형과

디지털 소품, 디자인 스튜디오 ‘오이뮤(OIMU)’와 협업해 한국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굿즈 등 총 40여 가지 굿즈를 구입할 수 있다. 시음존에서는 새로 소주 칵테일과 저당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브랜드 ‘라라스윗’이 협업해 제작한 제로 슈거 모나카 아이스크림을 페어링한 ‘새로 술상’을 맛볼 수 있다.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새로구미 한복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구미 한복 체험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또는 네이버 지도에서 ‘새로 팝업’ 키워드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롯데칠성음료가 전개하고 있는 ‘세계관 마케팅’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새로 출시와 함께 구미호 캐릭터를 앞세워 다양한 세계관 마케팅을 펼쳐 왔다. 새로구미 캐릭

터 이야기를 담은 유튜브 콘텐츠는 1개월 여 만에 1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제조 공장이 있는 강릉에는 ‘처음처럼&새로 브랜드 체험관’을 열기도 했다.

‘새로’의 세계관 마케팅과 제로 트렌드에 힘입어 롯데칠성음료의 국내 소주 시장 점유율은 1년 전 15% 안팎에서 최근 20% 초반대로 올라섰다. 새로가 차지하는 점유율만 8.1%다. 지난해 3분기 25억원에 그쳤던 새로 매출액은 4분기 155억원으로 훌쩍 뛰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1분기 280억원, 2분기 320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새로운 세계관 알리기와 굿즈 확대를 통해 브랜드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 해외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 중국 등 총 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국가를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새로02-57 팝업스토어에서 맛볼 수 있는 새로 칵테일.

/메트로 DB

## 웅진식품 “관절·갱년기 건강 챙기세요”

‘다릴한 관 한방 관절 뼈’ 등 2종  
한의사와 공동 연구·개발 출시

웅진식품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다릴한’의 신제품을 출시하며 한방 건강기능식품 라인업을 확대한다.

‘다릴한’은 웅진식품과 한의사가 공동 연구·개발한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로, 웅진식품의 건강철학과 한방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원료 선정부터 제조 연구, 배합 설계, 제품 개발까지 현직 한의사들이 직접 제품 개발에 참

여했으며 한국인의 몸과 식습관에 맞춰 개발했다.

지난 7월 출시된 ‘다릴한 공 한방 다이어트’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신제품은 ‘다릴한 관 한방 관절 뼈’와 ‘다릴한 후 한방 갱년기 건강’ 두 가지이다. 웅진식품은 총 세 가지 한방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로 4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여성 타깃층을 공략할 계획이다.

‘다릴한 관 한방 관절 뼈’는 관절과 연골 조직을 구성하는 황 성분의 일종

인 MSM이 하루 최대 섭취량 2000mg 함유돼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 홍화씨, 우슬, 당귀 등 8종 전통 부원료를 복합 배합했으며, 칼슘이 함유돼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된다.

‘다릴한 후 한방 갱년기 건강’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분자 구조인 ‘소포리코사이드’가 담긴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이 일일 섭취량 100%인 350mg 함유돼 갱년기 여성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다. 당귀, 감초, 작약 등 10종 전통 부원료를 까다롭게 골라 배합



다릴한 관

/웅진식품

해 만들었다.

두 가지 신제품 모두 한의사 김난희 원장이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대추와 감초로 맛을 내 쓴 맛을 줄였으며, 보존료, 착색료 등 불필요한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했다. 하루 1포로 간편하고 쉽게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 사조대림, 2023 추석 선물세트 판매 돌입

‘리-유즈’ 콘셉트 플라스틱 9톤 절감

사조대림이 2023년 추석 선물세트를 출시하고 본판매에 돌입했다.

올해 사조대림은 오랫동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 제품인 사조 참치, 해표 식용유, 안심팜 등을 담은 ‘안심특선’ 시리즈 ▲안심특선 E-65호 ▲안심특선 88호 ▲안심특선 행복나눔호 등 합리적인 가격대의 실속 있는 선물을 마련했다.

특별한 선물을 찾는 고객에게는 ▲얼리지 않고 갓 잡은 생 참치로 만들어 살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필렛 통살 타입 참치캔 ‘사조 생생참치’로 구성된 프리미엄 생생참치세트 4호 ▲고급 어종을

사용해 맛과 품질을 한층 더 극대화한 ‘사조 프리미엄 참치’ 4종을 담은 프리미엄참치세트 E호 등을 추천한다.

이밖에 올해에는 세분화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선물세트를 기획했다. 캠핑이나 에어프라이어 조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신제품 ‘해표 오일스프레이’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대표 제품은 물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구성의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앞서 사조대림은 2023년 추석 선물세트에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든다는 의미의 ‘리-유즈’·‘리-그린’ 콘셉트를 적용, 플라스틱을 총 91톤 절감했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 “소비자 직접 ‘교촌치킨’ 만들어 보세요”

교촌에프앤비 ‘교촌 1991 스쿨’ 확대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고객 대상 조리 체험 프로그램 ‘교촌 1991 스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고객 점점 늘리기에 나섰다.

‘교촌 1991 스쿨’은 기존 본사 신규 임직원 및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하던 실무 교육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직접 조리, 포장 등 치킨 제조 과정을 전반적으로 체험하며 브랜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4월 1기를 첫 모집했고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본사 교육 R&D센터 ‘정구관’에서 진행됐다. 매 진행 시마다 선착순 10분 마감되는

등 고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고객 체험 프로그램이다.

교촌은 참여를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전국에 거점 교육센터를 마련했다. 교촌의 메인 교육 센터인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본사 교육 R&D센터 ‘정구관’을 기반으로, 얼마전 이태원에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 ‘교촌 필방’과 함께 전국 3곳(동부, 서부, 남부)의 복합 및 물류센터에도 교육 장소를 마련해 프로그램을 이어 나간다.

또한 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해 경기도, 전라도 등 기존 교촌치킨 매장에서 ‘교촌 1991 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했다.

/신원선 기자

## CJ올리브영 ‘올영세일’ 매출 외국인·온라인서 급증

외국인 관광객과 온라인 쇼핑이 늘어  
나면서 CJ올리브영 매출도 급증했다.

CJ올리브영이 지난달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한 ‘올영세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과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엇보다 방한 관광객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명동 상권 매장에서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제주(▲23배), 부산(▲7배) 등의 지역 상권과 강남(▲10배) 등의 신흥 상권에서도 외국인 매출이 증가했다.

이번 올영세일 기간 온라인 매출 비중은 35%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해외 150여 개국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올리브영 글로벌몰’의 매출도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이청하 수습기자 mlee236@



# “뱅크시 작품 무료 관람하세요”… 호텔업계, ‘아트캉스’ 활짝

파라다이스시티 아트스페이스  
뱅크시, 키스해링 작품 32점 공개

포시즌스 호텔 서울  
에바 알머슨 컬래버 작품 전시

메이필드호텔 서울  
필립 콜버트 야외 조각전 기획

호텔업계가 야외 또는 로비에 유명 예술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고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아트캉스(아트+바캉스)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국제아트페어 ‘프리즈 서울(Frieze Seoul)’과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한국국제아트페어-키아프(KIAF Seoul)’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예술에 관심있는 관람객들과 아트 컬렉터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유명 호텔들은 내부에 예술 작품을 교체·전시하고 관련 식음 서비스를 선보였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시티 아트스페이스에서는 세계 3대 경매사인 소더비와 협업한 전시 ‘더브 인 파라다이스 뱅크시 앤 키스 해링’을 감상할 수 있다.

‘얼굴 없는 작가’로 잘알려진 뱅크시



필립 콜버트 조각전 야외 아트리움

/메이필드호텔 서울

와 키스해링의 작품 32점을 11월 5일까지 무료 공개한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뱅크시의 300억원대 그림이 국내 최초 공개되기도 했다. 뱅크시 작품 중 최고가를 기록중인 ‘풍선 없는 소녀’도 만날 수 있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은스페인 출신의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과 컬래버레이션했다. 호텔의 이름대로 ‘사계절(Four Seasons)’이라는 주제 아래 에바 알머슨의 생동감 넘치는 일상 속 표현들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아낸

작품을 11월 말까지 호텔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지하 1층 더마켓 키친과 2층 오울에도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오울에서는 미슐로지스트가 이번 협업을 기념해 2종의 칵테일을 새롭게 선보여 숙박객의 오감을 만족시킨다.

파르나스호텔이 운영하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10월31일까지 아일랜드 작가 미셸 하튼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아트 칵테일 5종을 선보인다.

프리즈서울 관련 패키지를 위해 개발



뱅크시 작품 ‘풍선없는 소녀’ /파라다이스시티

된 메뉴로 하튼 작가의 작품관을 여실히 반영한다. 대표적으로 진도의 전통 홍주와 오미자, 라임주스의 조화로 탄생한 ‘로열 진도(Loyal Jindo)’, 향긋한 자스민과 달콤한 버무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티 칵테일 ‘Lay down your worries here(이곳에 당신의 근심걱정을 내려놓으세요)’이 있다. 아트 칵테일은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1층 ‘그랜드 로비 라운지&바’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개관 20주년을 맞은 메이필드호텔 서울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필립 콜버트의 대형 예술품을 내년 2월까지 야

외 정원 아트리움에 전시한다.

이번 야외 조각전의 타이틀은 ‘비온드 더 필드(Beyond the Field)’로 부제는 ‘애니원 캔 두 애니씽(Anyone Can Do Anything)’이다.

필립 콜버트는 메가 팝아트 장르를 개척하며 차세대 앤디 워홀이라고 평가받는 영국의 컨템퍼러리 팝 아티스트다. 랍스터를 페르소나로 삼아 회화, 조각, 미디어아트, 메타버스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신이 상상하는 무엇이든 팝 아트로 표현해 내는 예술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메이필드호텔 서울의 아트리움에 전시되는 필립 콜버트의 대형 랍스터 조각품은 4가지로 각 작품의 높이만 2~3m에 달한다. 오는 23~24일 양일간은 필립 콜버트가 직접 참여하는 특별한 와인페어 ‘디오니소스×필립 콜버트’도 열린다.

호텔 측은 “과수원으로 시작해 서울 한복판에 도심 속 숲을 조성하며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와 희망을 안겨주고 싶어 호텔을 짓게 된 메이필드호텔의 철학과 변천사가 ‘애니원 캔 두 애니씽’이란 슬로건과 맞닿아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퓨어시스템-에이디주’, EASI50 달성률 70%”

(습진중증도평가지수)

### 강스템바이오텍 기업설명회

2019년 임상 대비 10~20% 향상  
내년 하반기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강스템바이오텍이 자사가 개발 중인 아토피 치료제 ‘퓨어시스템-에이디주’에 대한 성공 기대감을 내비쳤다. 내년 상반기 임상 최종 결과를 확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2025년 첫 줄기세포 아토피 치료제가 탄생할 전망이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아토피, 골관절염 치료제 임상결과를 주제로 한 기업설명회를 갖고, 퓨어시스템-에이디주 임상 3상의 1년 시점 장기추적 데이터를 발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치료제 투약 후 1년 시점의 EASI(습진중증도평가지수)50 달성률은 최소 64%에서 최대 70%로,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임상 3상에 대한 장기추적조사 결과인 58%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아토피, 골관절염 치료제 임상결과를 주제로 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대비 10~20% 향상률을 확인했다. EASI50이란 의약품 투여 후 피부염 증상이 50% 이상 개선된 환자의 비율을 뜻한다.

강스템바이오텍 배운한 임상개발본부장은 “임상 3상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추후 포함될 환자 수 및 현재 데이터 추세를 고려했을 때 1년 시점에서 최대 70%까지 EASI50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 효능을 감안했을 때 임상 3상의 결과를 확인하는 시점인 12주 차의 데이터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기

대된다”며 “특히 EASI75 달성률도 2018년 출시 이후 급격한 매출성장을 보이는 항체치료제 수준인 42%로 나타나 약물 경쟁력 또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내년 상반기 퓨어시스템-에이디주 임상 3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같은 해 하반기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2025년 상반기 내 품목허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배 본부장은 임상 1상 투약을 진행 중인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과 기술수출 계획에 대한 발표도 진행했다.

배 본부장은 “연내 1상 투약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약물의 6개월간 안전성 및 MRI 기반 영상 데이터 판독을 통한 연골의 구조적 개선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동물시험에서 확보한 연골 조직 재생, 연하골 구조개선이 인체에 서도 확인될 경우 2024년 내 라이선스 아웃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왼쪽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 SK디스커버리 최창원 부회장, 아나 브르나비치 세르비아 총리, 프론티어바이오파마 키렌 나이두 CEO가 지난 8일 경기도 판교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에서 MOU를 체결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 SK바사, 세르비아 ‘백신 자국화’ 이끈다

백신 개발·생산 MOU 체결

SK바이오사이언스가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르비아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세르비아 백신 자국화를 돕는 데 나섰다.

지난 8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르비아 정부와 백신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바탕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세르비아 정부, 세르비아 대표 제약사 프론티어바이오파마는 올해 안에 세부적인 계약을 맺어 세르비아에 백신 생산 시설을 설립하고

상업화할 예정이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수준의 생산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기술이전 및 제품 상업화 ▲인력 양성 ▲R&D 지원 ▲팬데믹 대비 노하우 전수 등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르비아 정부도 행정적 지원과 함께 향후 완성된 제품이 세르비아 내에 신속히 조달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은 “세르비아의 백신 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더욱 많은 국가의 공중 보건 증진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수습기자 mlee236@

## 종근당건강-서울대, 건기식·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협력

기술교육 등 학술교류 본격화

종근당건강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 차별화를 위해 서울대와 손을 잡았다.

종근당건강은 최근 서울대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와 ‘건강기능성식품 소재 발굴과 마이크로바이옴 공동연구를 위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종근당건강은 유산균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발굴하고 아울러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공동 연구한다. 이를 위해 종근당건강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및 기술자문 실시 ▲연구시설과 장비

공유 ▲워크숍 ▲학술교류 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호곤 종근당건강 대표는 “이번 서울대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와의 연구협약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비롯한 우수한 기능의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발굴해 차별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수습기자

### 동아쏘시오그룹

## ‘2023 CSR세미나’ 개최

동아쏘시오그룹의 13개 그룹사 CSR 담당자들이 사회적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 CSR세미나’를 열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올해 4회

째를 맞이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와 고재성 같다 대표가 사회적 가치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정재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는 세미나 현장을 방문해 “그룹이 갖고 있는 사회적임경영에 대한 철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ESG 경영에 대해 고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하 수습기자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관찰한 남반지 성운

# 평화 혹은 붕괴, 변곡점에 선 지구사회의 미래

## 의식과 세계, 미래 교육의 새 지평을 찾아서

눈앞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대전환의 시대. 산업문명의 질주와 함께 도래한 지구적 위기가 인류 생존과 실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기후와 환경 위기, 바이러스 대유행, 6차 대멸종, 핵 대전 가능성, 불투명한 인공지능의 미래, 양극화와 지구 협력 정치의 실종….

눈에 보이지 않는 초 미시세계부터 거대 우주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현실은 결국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평범한 이치 속에서,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 미래세대의 미래를 위한 공적 실천의 새 지도를 찾아나서야 합니다.

경희는 유엔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제창한 후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의 염원을 되새기며, 경희학원 미원평화학술원,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대학교의료원 의과학문명원은 새로운 상상과 도전의식으로 전환 문명 시대의 새 활로를 열어갑니다.

유엔은 1981년 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로(2001년부터 9월 21일로 고정),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 선포했다.

## 경희대학교

### 2024학년도 수시모집

접수기간 : 2023.9.11(월) 10:00 ~ 13(수) 18:00

입학정보 : [iphak.khu.ac.kr](http://iphak.khu.ac.kr) 입학상담 : 1544-2828 원서접수 :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 온라인 기능 강화 KHU:ON 입학처 : 비대면 상담과 지능형 검색, 영상 콘텐츠 강화로 수험생 정보 불균형 해소

## 경희사이버대학교

### 2024학년도 학부 학생모집

접수기간(예정) : 2023.12.1(금) ~ 입학상담 : 02)959-0000 / [go.khcu.ac.kr](http://go.khcu.ac.kr)

### 2024학년도 대학원 학생모집

접수기간(예정) : 2023.11.13(월) ~ 입학상담 : 02)3299-8808 / [grad.khcu.ac.kr](http://grad.khcu.ac.kr)





#### LG유플러스-연세대,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 맞손

LG유플러스가 연세대학교와 함께 메타버스 캠퍼스인 ‘버추얼 캠퍼스(Virtual Campus)’를 선보인다. LG유플러스와 연세대는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와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이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



#### 오리온그룹, 국군장병에 1억 상당 선물세트 전달

오리온그룹은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장병에게 오리온 제품을 담은 총 1억원 상당의 선물세트 1만 상자를 후원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안수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장,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오른쪽)가 ‘국군장병 후원 물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리온그룹



#### 동반위, 중소기업 소통 나서… 여경협과 첫 간담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단체와 동반성장 소통 강화에 나선다. 10일 동반위에 따르면 여경협과 지난 7일 서울 역삼동 여경협 사무실에서 ‘동반성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앞줄 왼쪽 2번째부터)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 이정환 여경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 스타벅스, 장애 청년·난치질환 아동 수술비 1억 기부

스타벅스는 지난 8일 서울대치과병원점 매장 수익금의 일부로 조성된 1억원을 중증 장애 청년 및 희귀 난치성 질환 아동 수술비 지원 기금으로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좌측부터) 스타벅스 서울대치과병원점 김동민 수퍼바이저, 스타벅스 서울대치과병원점 최예나 점장등 관계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 김명인 인하대학교 교수 14회 임화문학예술상 수상

인하대학교는 김명인 국어교육과 교수(사진)가 최근 제14회 임화문학예술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임화문학예술상운영위원회와 소명출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 김명인 교수는 2021년 출간한 비평집 ‘폭력과 모독을 넘어서’ (소명출판)로 수상을 했다.

김명인 인하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한국 근대비평문학의 개척자이자 열정과 낭만의 시인이었던 임화 선생의 서거 70주년을 맞아 그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ihj@



# KT, 우수 중소·스타트업 파트너사 해외진출 돕는다

## 유명 ICT 전시회 참여 지원 핵심 파트너사 성장 발판 마련

KT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스타트업 파트너사의 해외 판로 개척과 성장 지원을 위해 글로벌 유명 ICT 전시회 참여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15~18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는 IBC2023(국제방송박람회), 26~2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MWC 라스베이거스 2023, 10월16~2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GITEX2023 등 총 3개 전시회가 대상이다.

KT는 수출에 특화된 지명도 높은 해외 ICT 전시회에 참여해 핵심 파트너사뿐만 아니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이 KT 핵심 파트너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IBC2023는 세계에서 가장 지명도 높은 방송·미디어 전시 콘퍼런스이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및 기술 전시회다. KT의 핵심 사업인 미디



지난해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콘그레스(SCEWC)’에 마련된 KT파트너스관에서 파트너사와 KT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어 분야파트너 중심으로 참여한다. 마르시스(AI셋톱박스), 오투오(메타지식 생성 및 큐레이션 솔루션), 리모트솔루션(친환경 리모컨) 이너웨이브(Dr.Genie, OTT플랫폼 관제시스템), 애니포인트미디어(광고 플랫폼 솔루션) 등 5개 기업이 참가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주최로 개최되는 MWC 라스베이거스 2023는 참관객이 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으로 구성된 B2B 성격의 IC

T 전시회인만큼 참여 기업의 수출 기회 확보가 목표다. 호성테크닉스(동축커넥터, 전력분배기), 휴림네크웍스(기지국·인빌딩 안테나), 클리카(자동 경량화 AI 솔루션), 아이디어링크(AI 골프 스윙분석 시스템), 우리넷(양자암호 키분배기)까지 5개 기업이 참가한다.

GITEX는 39년의 역사를 갖고있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ICT전시회다. 특히 지역 내바이어들이 중심이 된 수출상담이 활발하며,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유치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KT를 포함해 글림미디어(K-POP 팬덤 플랫폼), 링크플로우(360도 웨어러블 카메라), 베어로보틱스(실내배송·서빙 솔루션), 우리로(양자암호센터), 성창(초소형 직류 무정전전원장치) 등 5개 기업이 참가한다.

KT는 전시장 내 ‘KT 파트너스관’ 부스를 마련하고, 각 파트너사들은 서비스와 제품 시연, 집중적인 바이어 상담으로 해외 판로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현대차그룹, ‘부산엑스포 아트카’ 뉴델리 등 세계 주요도시 질주

### G20, 아세안 정상회의 등서 운행 “개최지 선정까지 유치활동 총력”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네시아에 이어 인도에도 부산의 매력을 담은 아트카로 전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현대차그룹은부산엑스포를 감성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내 대표 그래픽 아티스트인 ‘제이 플로우’와 협업한 아트카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어 인도 뉴델리 곳곳을 누비며 부산을 알렸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9~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8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특별 제작한 아트카를 활용해 2030 부



부산엑스포를 알리는 현대차그룹 아트카 차량(아이오닉 5)이 인도 뉴델리 주요 명소인 ‘쿠티브 미나르’(Qutub Minar) 부근을 순회하는 모습

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부산세계박람회 비

전을 강조하기 위해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용전기차 아이오닉 5를 아트카 차량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주요국 인사 및 관광객과 현지인을 대상으로 부

산 유치를 위한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 자동차의 비전도 전달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그룹 아트카 차량은 지난 5~7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요 지역을 운행하며 감각적이고 컬러풀한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아트카 차량이 부산의 매력과 세계박람회 개최 의지를 알리는 움직이는 홍보대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까지 특별 제작한 아트카 등을 활용해 막판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포스코홀딩스, ‘기업시민 스토리북’ 발간 “블러드시티서 ‘플립·폴드5’ 체험하세요”

### 기업시민 경영 5년 성과 담아

포스코홀딩스가기업시민경영이념 선포 5주년을 맞아 ‘기업시민 포스코 5년 스토리북’을 발간한다.

포스코홀딩스는 11일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 5년 성과와 포스코 그룹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스토리북을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룹 임직원은 물론 ESG 경영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또는 기업 관계자 누구나 기업시민의 의미와 선포배경, 기업시민 실천 매커니즘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 5년의 노력과 결실을 사례 중심으로 스토리북에 상세히 소개했다.

스토리북 주제는 ‘기업시민 포스코 5년의 여정, 존경받는 100년 기업



을 향한 가치’다. 스토리북은 ▲문명사 변화 속 피어나는 공존의 빛, 기업시민 ▲우리가 함께 만들어진

기업시민 5년의 이야기 ▲기업시민 미래 총 3개 파트로 구성했다.

최정우포스코그룹회장(사진)은 발간사에서 “포스코가 100년 연속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실천하고 더 큰 성과로 세상에 가치를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2021년부터 국내 주요 대학에서 ‘기업시민경영과 ESG’ 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양성운 기자

### 삼성전자 에버랜드 체험존 조성

삼성전자가 에버랜드의 ‘블러드시티’에 ‘갤럭시 Z 플립5·폴드5’ 체험존을 운영한다.

올해로 7번째 시즌을 맞은 ‘블러드시티’는 매년9월초부터 11월까지 운영되는 가을 시즌 대표 체험 공간

으로 체험존은 11월 1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갤럭시 Z 플립5·폴드5’ 체험존은 ‘플렉스 윈도우’, ‘플렉스 캠’ 등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 인사

◆특허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백영란

### 부음

▲김옥순씨 별세, 오홍식(제민일보 대

표이사)씨 모친상=9일 오전, 부민장례식장 2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문중묘지. 0507-1432-4446

▲유영자씨 별세, 박성호(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씨 장모상=9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3호, 발인 12일 오전 6시 20분, 장지 국립호국원. 02-3010-2000





탤런트 이 경영



#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AMAS맞춤깔창 판매점 모집

삽인삽/한평삽/무점포

맞춤깔창의 대중화 선언

극소자본 창업

AMAS장비 무상지원

1년 무상 리폼을 통한  
확실한 애프터서비스!

자세를 바르게 하여  
가 수욱~쑥

어린이성장깔창

10분 만에 측정하고 제작을 완성하는  
초간편! 초저가! 최고의 가성비!



세상 사람들의 발 아치(족궁)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깔창을 신고 있습니다.

제2의 심장  
발



극소자본.최상매출.광역상권 [www.amas7.net](http://www.amas7.net)  
총판.판매점 문의 1660-1642

82305381365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인증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 회생절차 종결 시 산재사고 위자료 청구는?



박 규 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한다.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권자 스스로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걸 알면서도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채권은 실효된다.

그런데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회생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반적으로는 회생채권액이 명백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했다면 일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을 적어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한다. 어차피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와 같이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때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진행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회사에 다니던 근로자 B가 있다. 근로자 B는 2014년 6월경 추락으로 인한 뇌손상 등 산재사고를 당해 요양급여 등을 받으며 2019년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서야 A회사에 대해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그런데 A회사는 이미 2014년 8월 2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년 3월 24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6년 12월 회생절차가 종결된 상태였다.

먼저, 근로자 B가 가지고 있던 위자료 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 원인을 갖춘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즉 그 위자료 청구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미 산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위자료청구권 역시 동시에 발생하는 것. 근로자 B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A회사도 위자료청구권을 채권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근로자 B 역시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에야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A회사는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관해서는 책임

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그러나 (1) 회생채권자인 근로자 B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신고기간 등에 관해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회생절차에 관해 알 수 없었거나 (2)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를 살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009판결).

위와 같이 도산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은 아직 변제기가 다가오지 않았거나 채권의 존재가 명백하지 않으면 회사의 회생 절차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다가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아예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몰랐다면 예외에 해당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이를 알면서도 잘못된 판단으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과 연관된 채무자가 도산절차에 접어들다면 채권의 인정 여부는 추후에 다투더라도 일단 그 권리 내역을 모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바른

## 명동은 누구를 위하나



김 서 현  
(산업부)

팬데믹과 엔데믹, 완전히 달라진 곳이 있다. 서울 중구 소공동과 명동 일대 이른바 '명동거리'다.

팬데믹 3년, 명동은 아포칼립스 영화의 배경 같았다. 하늘길이 닫히자 명동은 순식간에 유명도시가 됐다. 제일 먼저 마스크 팩점포들이 문을 닫더니 곧 중심가 클로브 브랜드 매장도 문을 닫았다. 수년 자리 지킨 명동의 대표 가게들도 못 버텼다. 빈 점포가 늘면서 외곽은 쓸쓸년스러워졌다. 명동에서 10여 분 걸으면 나오는 을지로는 그 사이 '힙지로'로 떠올라 코로나19 무서운 줄 몰랐는데 명동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

명동은 엔데믹을 맞아, 정확히는 방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늘자 살아났다. 사막에서 몇 년간 비 오길 기다린 씨앗이 밤사이 내린 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듯 순식간에 활기를 찾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고 사태니 뭉니 하며 명동은 제법 한산했는데 지금은 밤 11시에도 명동을 오가는 전 세계 각국 관광객들로 시끄럽다. 쿠시먼드앤드웨이크필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명동의 공실률은 42.8%에 달했지만 올 1분기 공실률은 25%까지 떨어졌다. 1분기만에 17.4%p 줄어든 만큼 2분기에는 10% 미만인 전망 된다. 명실상부 관광의 메카다.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온 명동이지만 유통업계는 명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 안정세가 아니라는 것. 한국을 찾는 가장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들 '유커'는 명동을 떠났다. 지난달 중국의 단체관광이 허용되면서 명동 일대는 마침내 귀환한 '큰손'의 은총이 가득할 거란 기대가 가득했다. 큰손들은 명동이 아닌 '성수동'으로

향했다.

BC카드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2019년 8월 셋째 주)과 비교해 서울 성수동의 외국인 카드 매출은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첫주에 908%, 다음 주는 1315%까지 치솟았다. 반면 명동은 허용 첫주 37%, 그 다음 주 45% 느는 데에 그쳤다.

명동의 위기는 지금이 아닐까? 외국인만 계속 들어온다면 명동은 마치 영원할 것만 같다. 한국인들은 명동을 찾지 않는다. 명동을 가도 다른 소풍 변화가 일대와 다른 점을 알 수가 없다. 다른 지역 보다 외국인은 많지만 요즘 시대에 외국인을 보기 위해 명동을 가는 한국인이 몇이나 될까. 한국인이 찾지 않는 한국 거리를 찾는 외국인. 그런데 그마저도 슬슬 떠나려는 듯 하다. 그런 데도 명동은 팬데믹 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외국인이 떠나면 바로 무너져 내리는 그때로 돌아가고 있다.

seo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1일 (음 7월 27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가는 날이 장날이니 외출은 다음날에. 48년생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60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자. 72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넓은 마음으로. 84년생 연인으로 새로운 근심이 생긴다.



소

37년생 떨어지는 낙엽에도 사연은 있다. 49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선수가 될 수 없음을 명심. 61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커진다. 73년생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하루. 85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빨리 포기.



호랑이

38년생 숨은 기술력을 발휘하고 재물도 받는 날. 50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이를 경계하라. 62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움이 느껴지는 날. 74년생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낸다. 86년생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다.



토끼

39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오듯이 일이 잘 해결. 51년생 친구가 찾아오니 하루가 즐겁다. 63년생 돼지띠와의 거래는 원만하다. 75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니 하늘도 높고 세상도 넓고 할 일도 많다. 87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움직이자.



용

40년생 적당한 경쟁은 발전의 요소. 52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나에게 온다. 64년생 심신은 피곤하나 재물은 들어오는 날. 76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는 날이니 거칠 것이 없다. 88년생 바쁜 일로 하루가 즐겁다.



뱀

41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53년생 의외의 귀인이 바로 옆에 있다. 65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니 항상 준비하라. 77년생 명에는 높이지만 실속은 별로 없는 속 빈 강정. 89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



말

42년생 마음은 바쁘고 행동도 바쁘다. 54년생 집 내간 말이 가족을 일깨워 돌아오니 이득이 있다. 66년생 내부공사로 스케줄이 넘친다. 78년생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90년생 직장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상사가 있다.



고양이

43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55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67년생 친절과 비검함에는 차이가 있다. 79년생 현실에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91년생 악수를 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



원숭이

44년생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56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음주와 과식은 신경 써야 할 것. 68년생 바람이 분다고 다 흔들리지는 않는다. 80년생 길을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챙겨라. 92년생 무리한 산행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닭

45년생 무관심이 화를 부르니 주변에 관심을 가져라. 57년생 남의 탓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일을 찾아라. 69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81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포기. 93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들다.



돼지

46년생 오늘의 부는 부모의 형설지공(형雪之功)이다. 58년생 뚝방의 횡재수에 감사하라. 70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라. 82년생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살펴라. 94년생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날.



돼지

47년생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다. 59년생 하나를 투자했는데 열을 얻는 운 좋은 날. 71년생 머피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83년생 이성유희가 많은 날이니 중심을 좀 더 잡아야 하는 날. 95년생 사소한 일이 모이면 큰일이 된다.



## 김상회의四季

천도재의 공덕

중국이나 한국은 조상에 대한 제의(祭儀)를 매우 중시하는 나라다. 세계 각국마다 문화와 관습에 따라 제사와 비슷한 전통이 있었지만 전통적 유교국가인 중국이나 한국에 비한다면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기독교 전통인 서양은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는 하나, 음식을 차리고 제문을 읽고 흠향하는 의식이 아니라 모두 모여서 기도와 묵상의 정도임을 볼 때 그러함을 알 수 있다. 동북아의 대표적 불교 문화권이었던 중국과 한국은 유교적 전통이 함께 공존하기에 4대조 정도에 대하여 제사를 올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인연 선망조상 친족연속까지 재(齋)를 올려야 하는 당위성을 설화하는 목련경(目蓮經)까지 있는 것을 보면, 평소애 잘 챙기지 못했던 조상 영가님은 물론 늘 마음에 남아 있는 수자령 영가와 먼 친척 영가까지 형편껏 천도해 드리고자 함이니 일년에 한 번만이라도 마음을 낸다면 그 역시 훌륭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천도재의 공덕에 대해 지장경에서는 28가지의 공덕이 있다 하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목련경에도 백중재이자 우란분재의 복력이 나와 있다. 천도재는 여러 의미 있는 일들 중 하나로 첫째는 구제불사(救濟佛事)요, 둘째는 정업불사(淨業佛事) 셋째는 작복불사(作福佛事) 넷째는 보은불사(報恩佛事)라는 것이다. 즉 조상을 비롯한 영가들이 설령 선처가 아닌 곳에 윤회를 한다 할지라도 정성껏 재를 올리고 기도해 드림으로 시공을 넘어 영가를 구제하는 것이니 좋은 일이다. 재를 올리는 후손이나 인연 있는 이들은 복을 짓게 되고 더불어 조상님께 또는 인연 있는 영가들에게 은혜를 갚게 되는 것이니, 재를 드려드리는 것으로 동시에 네 가지 수승한 공덕을 짓게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김승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268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1372호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사물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   |   |   |   |   |   |   |   |
|---|---|---|---|---|---|---|---|
|   |   | 9 |   | 7 |   |   |   |
|   | 4 |   | 9 | 3 |   |   |   |
| 3 |   | 5 |   | 8 | 6 |   |   |
|   | 9 |   |   |   |   | 1 | 4 |
|   | 7 | 8 |   |   |   | 3 | 2 |
| 2 |   | 1 |   |   |   |   | 8 |
|   |   |   | 5 | 6 |   | 2 | 3 |
|   |   |   |   | 4 | 1 |   | 7 |
|   |   |   | 2 |   |   | 5 |   |

|   |   |   |   |   |   |   |   |
|---|---|---|---|---|---|---|---|
| 4 |   |   | 8 |   | 1 |   | 7 |
|   |   |   | 2 | 4 |   | 8 |   |
|   |   |   |   |   | 6 |   | 5 |
| 7 | 4 |   |   |   | 5 | 6 | 2 |
|   | 1 |   |   |   |   |   | 9 |
| 3 |   | 9 | 6 |   |   |   | 8 |
|   | 6 |   | 4 |   |   |   |   |
|   |   | 3 |   | 2 | 9 |   |   |
| 1 |   |   | 5 |   | 8 |   | 9 |

### 정답

|   |   |   |   |   |   |   |   |
|---|---|---|---|---|---|---|---|
| 8 | 7 | 9 | 8 | 7 | 9 | 1 | 6 |
| 9 | 7 | 6 | 1 | 7 | 8 | 7 | 9 |
| 8 | 1 | 7 | 6 | 9 | 9 | 7 | 8 |
| 7 | 8 | 9 | 7 | 6 | 8 | 1 | 9 |
| 6 | 7 | 9 | 1 | 9 | 8 | 7 | 7 |
| 7 | 9 | 1 | 8 | 7 | 8 | 6 | 9 |
| 1 | 6 | 7 | 9 | 8 | 7 | 9 | 8 |
| 9 | 9 | 8 | 7 | 8 | 6 | 7 | 1 |
| 7 | 8 | 7 | 7 | 1 | 6 | 9 | 8 |

|   |   |   |   |   |   |   |   |
|---|---|---|---|---|---|---|---|
| 6 | 7 | 8 | 9 | 9 | 7 | 7 | 1 |
| 9 | 7 | 1 | 6 | 7 | 8 | 8 | 9 |
| 8 | 7 | 9 | 8 | 1 | 7 | 7 | 9 |
| 1 | 8 | 7 | 7 | 9 | 6 | 9 | 8 |
| 9 | 6 | 7 | 8 | 8 | 9 | 1 | 7 |
| 7 | 8 | 9 | 9 | 6 | 1 | 8 | 7 |
| 7 | 9 | 7 | 9 | 8 | 6 | 1 | 7 |
| 8 | 1 | 8 | 7 | 7 | 9 | 6 | 9 |
| 7 | 9 | 6 | 1 | 9 | 8 | 7 | 8 |

과외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 “불법 사교육 막자” 서울교육청, 학원법 위반 61건 행정처분

불법 사교육 184건 중 169건 처리  
강남·서초구 지역 신고 70% 달해  
시설·교습비·강사 관련 위반 적발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사교육 행태로 신고된 184건 중 169건에 대해 행·재정적 처분을 내린 가운데, 신고 접수 지역 70%에 달하는 129건이 강남·서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불법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외를 전수 조사하고 특별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84건 중 169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전국 각 시도교육청은 신고 내용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 5일까지 신고된 서울 관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184건 중 강남·서초구 지역이 129건으로 70%를 차지했다. 목동이 위치한 강서·양천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강동·송파 8건 ▲서부 7건 ▲중부·동작·관악 각각 6건 순이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열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 경쟁교육 제로 캠페인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에서 한 학생이 학원 수강 현황 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시

교육청은 시설, 교습비, 강사 등 관련 위반이 적발된 사항에 대해 총 61건의 행정처분과 9건의 과태료 부과를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시설 ▲교습비 ▲강사 관련 위반 순이다. 행정처분 61건 중에서는 벌점 부과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행정지도 4건, 교습정지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는 9건에 총 12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교육청이 고발을 진행한 경우도 4건 있었다.

행정처분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고액

입시 및 과외, 방학 중 불법 캠프 운영, 무등록 교육시설, 초등 의대입시반 등을 중심으로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고액 과외를 사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jh@metroseoul.co.kr

##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 공대 학부 개편



전체 92.6%인 2459명 수시모집

울산대학교는 올해 전체 모집인원 2655명(정원 외 포함) 가운데 92.6%인 2459명을 수시전형으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으로만 한다.

올해 울산대 수시 전형은 3가지 유형의 12개 전형으로 분류된다. 대부분 전형에서 전형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교과 100%와 수능최저학력기준만을 적용한다. 미술학부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다. 대부분 모집단위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학생부종합 유형의 경우,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통해 부산·울산·경남지역 고교를 입학하고 졸업(예정)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뿐만 아니라 (의예과 별도)하는데, 선발인원을 전년도 321명에서 374명으로 53명 확대했다.

학생부종합 특별전형(의예과 별도)



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4배수의 면접대상자를 선발하고 2단계 면접 후 최종 선발한다.

의예과는 논술 전형 및 지역인재(논술)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종합 특별전형, 지역인재 특별전형, 지역인재(기초/차상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학생부종합 및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단계 서류평가에서 5배수를 선발한다.

과학기술융합대학 반도체학과는 공과대학으로 이전해 나노반도체공학과로 개편됐다.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부는 산업경영·산업안전공학부로, 건설환경공학부는 건설환경공학부(건설환경공학/재난·건설안전공학)으로 각각 개편됐다. /이현진 기자

## 임산부 배려석 개선, 교통약자 하차벨 요구

서울시민, ‘상상대로 서울’에 제안  
센서등 설치 등 임산부 배려석 보완  
천천히 내리는 버스 벨 아이디어도

시민들이 임산부 배려석 개선, 버스 내 ‘천천히 하차벨’ 설치 등을 서울시

에 요구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임산부 배려석의 문제점을 보완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김모 씨는 임산부 바우처 카드를 신청할 때 임산부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카드는 태그시 “임산부입니다”라는 음성을 표출해 버스 내 승객에게 임산부가 승차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김 씨는 “임산부가 탔다는 사실을 승

객들이 모두 알 수 있게 안내 방송이나 간다면 임산부 배려석에서 버티고 앉았다가 쉽게 앉을 것”이라며 “실제로 몰라서 양보를 못했던 승객에게도 배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임산부석에는 임산부 배지와 연동되는 센서등 설치를 제안했다. 배지를 소지한 임산부가 배려석 주변으로 가면 센서등에 불이 켜지고, 자리에 앉은 뒤 배지를 태그하면 등이 점멸하는 방식이다.

김씨의 제안에는 8월 22일부터 이날 오전 11시30시까지 133명의 시민이 공감

을 표했다. 서울시 도시철도과는 “부산지하철의 ‘핑크라이트’와 같은 타 지역의 장치 설치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

다”며 “라이트 및 경고음 스피커 설치로 인한 소음·불빛에 대한 민원과 배려를 강요한다는 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로 인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버스에 교통약자 전용 하차벨을 만들 어달라는 아이디어에는 올 8월 3일부터 이날까지 83명이 공감 표를 던졌고, 비

공감 의사를 밝힌 시민은 없었다. 서대문구 소재 지체장애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최모 씨는 “버스에 ‘천천히 내릴게요(가칭)’ 벨이 생기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비롯해 어르신, 어린 아이와 함께 탄 승객, 짐이 많은 승객 등 천천히 내려야 하는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혁신기업 찾는 ‘스타트업 대축제’ 열린다

서울시, DDP서 ‘트라이 에브리싱’ 220개 투자사, 스타트업 1500곳 참여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인 ‘트라이 에브리싱(Try Everything)’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혁신기업을 찾는 220개 국내외 투자사와 바이오·핀테크·로봇 등 유망 스타트업 1500곳이 참여한다. ‘Start Now, Try Together’라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 투자, 동행’을 주제로 강연과 포럼, 투자유치(IR) 등 65개의 스타트업 전문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첫날 개막식은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의 축사,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총 1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전시·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뷰티·바이오헬스 체험관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된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890원 결정

주거비, 교육비 등 고려… 3.5% 인상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3년보다 3.5% 오른 1만1,890원으로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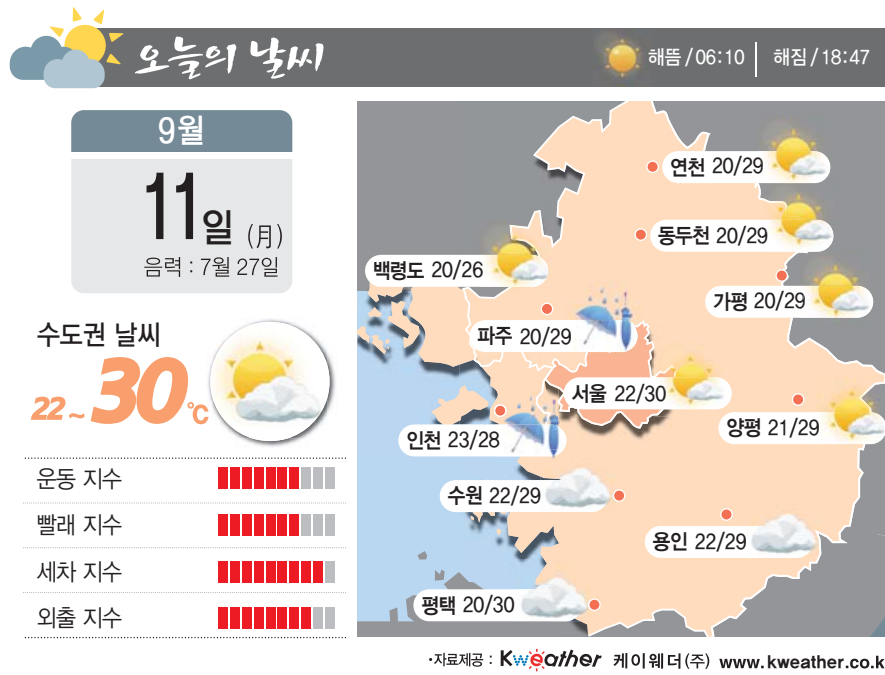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 제9회 생활

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최종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은 2023년 생활임금 1만1,485원보다 3.5% 오른 수준이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이 오른 248만5,010원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모로코지진 사망자 1305명 부상 1832명…국제사회 애도 /사진 뉴스시  
▲중국 “2026년 미국서 G20 정상회의 개최 반대”

▲美, 중국 견제하는 ‘인도·중동·유럽’ 인프라 출범키로  
▲기후변화협약 8년…세계 각국, 온난화 방지 노력 여전히 미흡



▲뉴멕시코 공공장소 무기소지 금지령…총기단체 고소  
▲태풍 ‘원영’ 영향 일본서 3명 사망…가옥 1200여채 침수 /사진 뉴스시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롯데칠성 '새로' 팝업  
미디어아트로  
강릉 동대굴 표현  
L1



Life

호텔업계  
예술작품 전시  
'아트캉스' 활짝  
L2



재밋는 일 찾던 청년, 지역의 '문화 기획자'로

## “로컬에 콘텐츠 더해 ‘유잼 공간’ 만들었죠”

〈재미가 있음〉



새벽을 여는 사람들

피키차일드컴퍼니(PCC)

성 주 현 대표

여기, 그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을 찾던 사람들이 만든 회사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구·경북 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피키차일드컴퍼니(PCC, Picky Child Company)'다. PCC의 초기 설립자(Co-founder)인 김대완·박동균·성주현·송영훈·오영식. 이 다섯 청년은 '지속가능한 모험'을 떠나기 위해 뭉쳤고 2016년부터 PCC라는 이름으로 '무사항해' 중이다. 목적인 랩을 뱉을 것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성주현 PCC 대표는 “‘노잼(재미가 없다)’인 일은 하지 말자는 신념으로 모인 다섯 사람이 재미있는 일을 찾다 보니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음식과 문화공간을 통해 담아내는데 흥미를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 까다로운 아이들, '음식'에 이야기 담다

PCC의 P는 '까다롭다'라는 의미를 지닌 'Picky'에서 따왔다. 그만큼 성 대표를 비롯해 경영과 업무 일선에서 뛰는 구성원들은 음식과 취향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을 가졌다. 20대 젊은 사장님들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진지했고, 그 일을 할 때는 '아이'처럼 즐겁게 일했다.

PCC 산하 ▲피키차일드다이닝(2016) ▲동아식당(2019) ▲컬렷(2022) ▲미트필드(2022) 다섯 개 F&B 브랜드는 대구·경북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힙한 식당'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성 대표는 “파운더 다섯 명 중에 셰프(Chef) 출신은 없지만 모두가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며 웃어 보였다. 비록 요리를 전공한 사람은 없었지만, 대표들은 수없이 많은 음식을 사먹고 지역과 상권의 특징을 연구했다. 그렇게 PCC는 몸소 부딪친 경험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었다. 성 대표는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전역 후에 중퇴하고 창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며 “나쁜만 아니라 회사 구성원들 대부분이 본인이 흥미를 가지고 맡은 역할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실무를 해내며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셰프보다는 '음식 기획자'에 가까운 업무를 해내며 PCC를 성장시켜 나간 것이다.

PCC가 설립한 첫 번째 브랜드인 대구 봉산동 '피키 차일드 다이닝'을 향한 반응은 뜨거웠다. 이탈리아 캐주얼 다이닝을 지향하며 '접시 위에 무엇을 담을지' 고민한 결과, 피키 차일드 다이닝은 PCC의 앵커 스토어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대구 '핫플'로 통하는 '동아식당'은 '맛' 이전에 '외관'부터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손님들이 제일 먼저 마주하는 광경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동아목공' 간판이다. '레트로' 효과를 노린 것이냐는 말에 성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감히 '평생'을 뽐낼 수 없었다”라고 답했다. 기능은 비록 '식당'으로 바뀌었지만, 한평생을 목공에 바친 목수의 신념이 깃든 곳이기 때문이다. PCC는 그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건물의 외형과 간판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단순히 간판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적극 내비친 것이다.

PCC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은 만드는 음식에도 깃들여 있다. 성 대표는 “동아식당에서는 소면, 김밥, 볶음밥, 비빔면 등의 익숙한 음식을 경상도 지역의 식재료로 새롭게 풀어내 계절 메뉴로 선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봄·여름 메뉴판에는 “차돌 갇힌 국수”는 밀양의 갇힌, 군위군 용대 방앗간의 고소한 들기름을 사용해 만들었다”라는 설명이 적혀있었다.



① 경북 영주시 '미트필드' 입구에서 포즈를 취한 (왼쪽부터) 피키차일드컴퍼니 오영식 이사, 김대완 이사, 송영훈 이사, 성주현 대표, 박동균 이사.

② 대구 '동아식당'의 봄·여름 메뉴 ③ 첫번째 브랜드인 '피키차일드다이닝'을 담당하고 있는 멤버들. /PCC



재밋는 일 찾던 5명의 청년 모여 창업  
지역·상권 특징 연구 '음식 기획자'로

대구·경북 지역 5개 F&B 브랜드 설립  
경상도 식재료 활용한 계절메뉴 선보

공연·전시 등 지역 내 문화 활성화도  
지역 자원 활용한 콘텐츠 만들어갈 것

그 결과 두 식당은 긴 웨이팅 시간을 불사하고도 손님이 찾는 '힙한 식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 “로컬, 품 미쳤다!”... ‘콘텐츠 그룹’

“로컬(지역)이라는 키워드는 매력적이다. 로컬을 제대로 담으면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이라는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하는 '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로컬'과 '소셜 임팩트'는 서로 맞닿아 있는 셈이다.”

PCC는 영주시와 SK스페셜티가 함께 추진하는 '영주경제속으로(STAXX)' 프로젝트에 참여해 2022년 패밀리 다이닝 '미트필드'를 개점했다. 인구 10만명 붐과 초읽기 중인 영주시에 '도전'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살아왔고 살아갈 지역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물론 성 대표가 말한 지역은 '대구'이지만 영주 현재가 대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이동 현황 및 사유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16만2165

명이 다른 시·도로 순유출됐다. 지난해 기준 대구의 20대 중 6533명이 대구를 떠났다.

PCC도 지역 인구 소멸 추세에 영향을 받았다. 성 대표는 “사업이 점점 번창하고 있는데도 구인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트필드는 호황 중에도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노출도를 줄이기도 했다. 흑시라도 수용 불가능 수준의 손님을 받았다가 F&B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또한 성 대표는 PCC를 단순 F&B 그룹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그는 “PCC 산하 기업들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브랜드'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미 PCC는 F&B 사업은 물론 공연·전시를 기획하는 브랜드 'shed new light'를 기획한 바 있다. 성 대표는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작가들과 협업해 서울에 치중해 있는 문화 콘텐츠 분야를 지역에서도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다”며 “지역에서 사랑받는 F&B로서 번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의 활동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PCC는 '피키 차일드 컴퍼니'인 동시에 '문화를 잇는 사람들(People Connecting Culture)'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로컬 사업과 청년 스타트업'을 위해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냐'라는 질문에는 “오히려 '잘 될 만한 아이디어'에 투자해야 한다”며 “자칫하면 '투자'가 아니라 '희생' 수준의 지원이 될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성 대표는 꼬집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9일 KBO리그 프로야구 관중 12만 8598명...역대 최다  
▲신유빈-전지희, 韓탁구 안방서 금 수확 실패 /사진 뉴시스

▲네이마르, 펠레 넘버 브라질 A매치 통산 골 1위...79골  
▲김준우, 세계주니어선수권 남자 자유형 1500m 은메달



▲호주 교포 이민지, LPGA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 3R 선두 /사진 뉴시스  
▲독일 축구, 일본에 또 졌다...안방에서 1-4 대패 참사